차 례

【위인일화】

로동자시인에게 하신 인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온 나라에 《봄향기》화장품으로 명성이 자자한 신의주화장품공장을 찾으신것은 지난 주체107(2018)년 6월 어느날이였다.

이날의 현지지도길에서 꽃펴난 하나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린다.

이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품직장의 여러 생산공정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화장도구생산실의 수수한 의자에 허물없이 앉으시여 다른 나라에서는 화장용붓을 생산하는 일을 수공업적으로 한다고 해도 우리는 반드시 기계화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고 배합작업반에 이르시여서는 기술적특성이 복잡한 배합공정에 대한 작업반장의 설명을 들으시고 이제는 우리 로동자들도 고도의 과학자

수준이라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완성작업반으로 향하시였다.

그때 완성작업반의 무균화, 무진화된 작업장의 한 기대열에는 공장에서 오랜 기간 일한 녀성로동자가 있었는데 그는 우리 당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자라난 로동자시인이였다.

울렁이는 마음을 가까스로 누르며 기대의 작업과정을 세심히 살펴보고있던 그는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는것만 같은 느낌에 머리를 들었다.

순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업반복도에 들어서시여 그가 일하는 곳으로 다가오시는 모습이 맑은 유리칸막이를 통해 안겨왔다.

녀성로동자는 그만 자신을 잊고말았다.

그는 두손을 높이 들고 나어린 처녀애마냥 발을 동동 구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만세!》 하고 격정의 웨침을 터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였고 일행의 시선이 그한테로 쏠리였을 때 공장지배인

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곁으로 다가가 말씀드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저 동무가 바로 노래 <준마처녀>의 가사를 지은 우리 공장의 로동자시인입니다.》

이렇게 아뢰인 녀성지배인은 어려움도 잊고 경애하는 그이앞에서 노래 《준마처녀》의 처음 몇소절을 조용조용 불렀다.

우리 공장 동무들 웃으며 말을 해요
…

그리고는 다시 말씀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 이 노래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자기 공장 종업원을 내세우고싶어하는 심정이 다분히 풍기는 녀성지배인의 응석기어린 이야기를 들으시고 만면이 환하게 웃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잘 아시는 노래였다.

우리 인민이 불굴의 투쟁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구보행군으로 전환시킨 력사적시기에 태여난 노래, 위대한 장군님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고 장군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온 나라 인민들에게 희열과 랑만을 북돋아준 노래가 아니였던가.

오늘도 시대의 명곡으로 사랑을 받는 그 노래의 가사를 신의주화장품공장의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녀성로동자가 지은것이 못내 기쁘고 대견하신 그이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공장지배인과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화장품직장 녀성로동자가 노래 《준마처녀》의 가사를 쓴 로동자시인이라는데 공장에 그런 재간둥이가 있는것은 자랑할만 한 일이라고 정담아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다정하신 눈길이 유리칸막이안의 작업장에서 격정의 환호를 올리고있는 수수한 작업복차림의 녀성로동자에게 다시 가닿으시였다.

이어 참으로 가슴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경애하는 그이께서 그 녀성로동자를 향해 친히 머리숙여 인사를 하시는것이였다.

녀성로동자는 당황하여 어쩔바를 몰랐다. 꿈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직접 뵈온것만도 크나큰 영광인데 그이의 인사까지 받아안았으니 그처럼 송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또 어데 있으랴.

현지지도길에서 인민들이 열광의 환호를 올리며 따라설 때마다 친히 진정어린 감사의 인사를 보내시고 바다가의 물고기가공장에서 비린내가 물씬물씬 나는 작업복차림의 녀인들의 인사도 몸소 허리굽혀 받아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런데 또 오늘은 수많은 군중도 아닌 단 한명의 평범한 로동자시인에게 자신의 진정넘친 례의를 표시하신것이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는 그이의 고결한 천품이 그 뜨거운 인사에 어려있었다.

자기의 일터에 성실한 로동의 땀을 묻으며 시인으로 자라난 한 녀성로동자의 성장과 그의 창작성과를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열렬히 축하하시는 깊은 뜻이 절세위인의 그 인사에 담겨져있었다.

로동자시인에게 하신 인사!

정녕 그 한사람에게 하신 인사가 아니였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심장에 차넘치는 우리 로동계급에 대한 뜨거운 존중과 지극한 정의 발현이였으며 앞으로도 그들이 시대의 앞장에서 만리마를 타고 힘차게 내달리라는 간곡한 당부이고 따사로운 축복이였다.

《봄향기》깉은 일터에 꽃펴난 이 이야기는 평범한 근로인민에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열화같은 사랑, 그이의 특유한 위인적향기를 전하는 감동깊은 전설로 후세에 길이길이 전해질것이다.

진리의 대지를 찾아

석 윤 기(작가)

- 1929년 10월 22일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출생.
- 조국해방전쟁시기 의용군으로 입대.
- 1961년부터 작가로 활동.
- 1982년부터 4.15문학창작단 단장, 그후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겸임.
- 1989년 4월 28일 사망.
-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민족분렬의 비극을 안고 조국의 통일을 그리며 살던 작가 석윤기는 림종을 앞두고 아들 석남진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

《통일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를 꼭 찾

아뵈워라. 지금 살아있으면 할아버지는 89살, 할머니는 79살 됐을거야. 네가 아버지를 대신하여 술을 부어드려라.

내가 집을 떠난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구나. 네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를 위해 숱한 속을 썩였는데 난 한번도 효도를 하지 못했다.

나의 이 심정을 그대로 전해다오.

민족은 하나라는것이 분렬된 조국에서 사는 우리 작가들이 작품에 담아야 할 중요한 주제이다.

남진아, 통일을 위해 민족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글을 많이 쓰거라.》

한 인간이 생의 마감에 남긴 유언에는 그가 한생을 두고 품고있던 모든 소원이 담기고 그가 일생동안 닦아온 인격의 진모가 비낀다고 하였다.

남녘땅에 계시는 부모의 슬하를 떠나 근 40년, 가슴속에 오로지 조국통일의 일념을

안고 창작의 붓대를 벼려온 작가 석윤기는 자식들의 이름도 해를 따라 간절해지는 통일의 념원을 담아 남주, 남진, 남연이라고 달았건만 애타게 그리던 통일의 그날을 끝내 보지 못하고 우리곁을 떠나갔다.

그의 생애는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한 인간이 누릴수 있는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서 빛났다고 할수 있다.

영예의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로력영웅, 4.15문학창작단 단장,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한없이 따사로운 사랑속에 받을수 있는 모든 믿음과 은정을 다 받아안고 영생의 길을 간 그의 생은 참으로 부러운것이였다.

그러나 그는 정말 행복하기만 했던가.

그는 한 인간이 누릴수 있는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누렸지만 분렬된 조국에 사는 한 지성인으로서 인간이 겪을수 있는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다 쏟아놓으며 살아온 사람이였

다. 어떻게 되여 그는 이 운명의 제비표를 골라잡았는가. …

《회고와 신념》의 세계

소설가 석윤기의 고향은 락동강류역인 경상북도 달성군이다. 그는 여기에서 1929년에 가난한 농가의 맏아들로 출생하였다.

첫 자식이 아들일 때 가정은 끝없는 기쁨과 웃음으로 밝아지는 법이건만 석윤기의 출생은 오히려 집안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연약하고 가난에 쪼들릴대로 쪼들린 어머니는 아들을 먹여살릴 길이 막막하여 땅이 꺼지게 한숨을 내쉬며 소리없이 울군 하였다.

하지만 그는 가난이 그대로 《식량》이 되였는지 병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났고 다섯살때는 자기보다 나이가 우인 아이들속에 끼워 서당공부를 하면서 무척 짧은 기간에 《천자문》을 떼여 신동으로 소문이 났다. 이것이

가난한 집에서는 너무도 큰 기쁨이여서 그의 할아버지는 손자를 목마태우고 동네방네를 다니며 자랑을 하였다.

하루는 동구앞 락동강가의 나루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나온 5살 난 그를 내리워 《천자문》을 외워보라고 요청했다.

그는 강뚝의 새파란 잔디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 앞뒤로 몸을 약간씩 흔들며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천자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다.

《하늘 천, 따 지, 감을 현, 누를 황…》

그 모양이 하도 기막히고 신기해서 눈을 껌벅이며 바라보던 안경쟁이가 어린것에게 만년필을 꺼내주면서 자기가 읊는 한자구를 써보라고 하였다.

안경쟁이는 제법 운까지 붙여가면서 《한래서왕하고 추수동장하리라.》 하고 호기있게 뽑는것이였다.

모여있던 어른들은 《저렇게 어린것한테 너

무 과하구만.》 하고 안경쟁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도 호기심이 동하여 만년필을 가누어 쥔 어린 석윤기를 바라보았다.

어린것은 조금도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입을 옥물고 눈을 깜빡이며 잠간 생각하더니 힘있게 만년필을 놀리였다.

《寒來暑往, 秋收冬藏》(한래서왕, 추수동장)이라는 8개 한자로 4언절구를 써놓는것이였다.

글씨는 조금도 서툰감이 없이 몹시도 방정하였고 필순이 정확했을뿐아니라 획과 획의 맞물림이 여물어 아주 기백이 약동하였다.

어른들은 너무도 희한하여 입들을 다물지 못하고 감탄하였는데 특히 글을 쓰라고 하던 그 안경쟁이는 두눈이 뒤집힐듯 휘둥그래졌다.

잠시후 안경쟁이는 그 뜻이 무엇인가고 묻는것이였다.

어린것은 꿇어앉은 자세를 꼿꼿이 펴고 챙

챙한 목소리로 당돌하게 《예, 추위가 오면 더위는 물러가기마련이고 가을에는 거두어들이고 겨울에는 깊이 건사한다는 뜻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어이쿠, 이녀석 놀라운걸, 너 분명 아이가 맞느냐?》

안경쟁이는 어린것을 덥석 그러안기까지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사람들모두가 혀를 내둘렀다.

《이 마을에 신동이 났구나. 경사로다!》

이처럼 석윤기는 어렸을 때부터 다문박식한 인재로 될수 있는 천성을 지니고있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은 어린 그의 모든것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리였다.

1938년 장마로 락동강이 범람하여 얼마 안되는 소작지를 묻어버리는 바람에 농사를 망쳐버린 그의 일가는 살길을 찾아 고향을 등지였다.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진눈까비내리는 두만

강을 건너선 그는 목단강에서 안타까이 찾던 아버지를 만났다. 아버지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중국소학교에 2년간 다니였는데 그는 그때 이 지역에 주둔하고있던 일본헌병대놈들의 주민학살만행을 목격하면서 치를 떨었다.

그곳에서도 살길이 막힌 석윤기의 일가는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와 그 원한서린 소작살이를 다시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1942년 석윤기는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 친척들의 피어린 후원으로 중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는데 인차 수재학생으로 공인되였고 학생회장으로까지 선출되였다. 이때 그는 학교당국이 강요하는 단체복착용을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기도 하였다.

석윤기는 16살 되는 해에 조국해방을 맞이하였다.

그는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난 기쁨과 격정에 넘쳐 친구들과 함께 뜨겁게 달아오른 8월의 대지를 힘차게 구르며 목청껏 부르짖었다.

《아, 해방이다! 우리 세상이 왔다!》

열혈청춘인 석윤기는 자유와 해방이 도래한 현실에서 벅찬 감격을 체험하면서 자기의 앞날에 펼쳐진 새로운 대지를 보는것만 같았다.

정의롭고 자유로우며 더없이 아름다와보이는 그 대지를 향해 새 삶의 배가 출항하였다는 환희에 그의 가슴은 못견디게 부풀어올랐다.

작가는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담아 시 《출항》을 써서 발표하였다.

이때를 회상하여 석윤기는 자기의 수필 《회고와 신념》에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민족재생의 태양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그처럼 어마어마하게 보이던 일제를 쳐물리치시고 조국을 해방해주시였다. …

나는 시를 썼다.

철부지 내 눈앞에는 찬란한 해빛아래 푸른 바다가 누워있었다. 사랑하는 조국은 창창한 항로를 앞둔 아름다운 배였다. 갈매기는 날

고 물이랑은 끝없이 설레이는데 우렁찬 배고동소리가 울린다. …그리하여 그 시의 제목은 <출항>이였다.》

하지만 작가는 이 세상에 보내는 청춘의 그 첫 속삭임으로 하여 상상할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체험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일제를 대신하여 기여든 미제침략자들과 그 하수인이 된 민족반역의 무리들은 그를 《빨갱이시인》으로 몰아 경찰서감방으로 끌고 가무지하게 매질하였다.

그는 푸른 꿈을 안고 희망의 바다로 《출항》한 이 시작품 한편때문에 무서운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던것이다. 반주검이 되여 들것에 실려나오던 날 평양의 하늘을 우러르며 부러진 갈비뼈밑에서 약동하는 심장에 불같은 결심을 새겨넣었다.

(내가 갈 곳은 평양이다. 거기에 청춘의 푸른 꿈도 꽃피우고 인간답게 살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

만고의 영웅, 절세의 애국자이신 **김일성**장군님께서 펼쳐가시는 저 민주의 대지야말로 내가 찾고 뿌리내려야 할 운명의 땅이 아닌가!)

그의 이 결심은 전쟁이 일어나 인민군대가 서울을 해방하였을 때에야 실천으로 옮겨지게 되였다.

석윤기는 용약 정의의 총을 메고 북으로 가는 길―침략자섬멸의 결전장으로 주저없이 뛰여들었던것이다.

석윤기는 수필 《회고와 신념》에서 다 피력하지 못했던 그 심정을 그후에 쓴 자기의 창작수기에서 펼쳐보이면서 자기가 선택한 그 길에 어떤 영광스러운 삶이 약속되여있었는지 그때는 알수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어버이수령님의 다심한 믿음과 사랑속에 작가로 자라나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보살피심과 이끄심을 받아 영광의 단상에 오른 자기의 오늘에 대하여 자자구구 새기였다.

만약 그가 북으로의 그 길이 힘들다고 다른 길을 걸었더라면 그 영광과 행복의 절정에 서지 못하였을것이다.

그러고보면 그가 남조선에서 단행한 첫 《출항》은 끝끝내 진리의 대지를 찾았고 그 기슭에 닻을 내린것이였다.

하지만 작가로서 우리 인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기까지는 순탄치 않은 의지의 행군길이 놓여있었다.

병상을 박차고 창작의 활주로에로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자리잡은 고층아빠트에는 작가 석윤기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생활한 살림집이 있다.

이 집에 들어서면 벽면을 꽉 채운 장서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끌어당긴다.

우리 나라 문학사에 올라있는 중편소설 《전

사들》, 장편소설들인 《시대의 탄생》(1, 2부), 《무성하는 해바라기들》(1부), 총서 《불멸의 력사》중에서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 《봄우뢰》, 《고난의 행군》, 《두만강지구》 그리고 불후의 고전적명작을 장편소설로 옮긴 《피바다》 등이 그가 걸어온 창작의 보람찬 나날을 이야기하여주며 장서에 빼곡이 꽂혀있다.

거의 모든 책들의 장정이 호화롭다. 그런데 그와는 어울리지 않게 색갈이 바래여 누렇게 된 문학잡지 한권이 그 호화장정의 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꽂혀있어 이채로움을 띠고있다. 그의 처녀작인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이 실려있는 잡지 《청년문학》이다.

1956년 3월 《청년문학》창간호에 실린 이 단편소설은 창작의 첫발자욱을 내디딘 신인 석윤기의 개성적인 얼굴을 단번에 뚜렷이 드러냄으로써 문단의 이목을 집중시키였다.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쓴 사람은 도

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사람들은 특히 작가들은 더더구나 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싶어하였다.

그가 남조선에서 의용군으로 입대하여 전승의 날까지 용감하게 싸운 20대청년으로서 병원침상에 누워있는 전상자라는것이 알려지자 그의 소설이 일으킨 파문은 몇배로 더 커지였다.

사실 그때 석윤기는 영예전상자병원의 어느 한 병동에 누워있는 몸이였다. 그 병동은 가장 위중한 환자들이 집결되여있는 호동으로서 의사, 간호원들의 관심이 각별하였다.

석윤기자신은 자기가 이러한 중환자의 처지에 떨어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었다.

그는 전쟁 3년 전기간 자동차를 운전한 수송전사였다. 어떤 때에는 항공연유를 싣고 또 어떤 때에는 탄약, 포탄상자를 가득 싣고 불비속을 헤치며 맡겨진 수송전투임무를 어김없이 수행함으로써 《용감한 수송전

사》, 《영웅적운전수》로 전선신문에까지 소개된 위훈자였다. 그런데 전승의 소식을 듣고 전우들과 함께 만세를 웨치던 그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일어설수 없는 몸이 되여버리였다. 아마도 전쟁 전기간 긴장해질대로 긴장해졌던 마음의 탕개가 전승소식에 접하자 자기도 모르게 확 풀어지며 육체를 쓰러뜨리였을것이다.

의식을 잃은 석윤기를 진찰하던 야전군의소군의들은 그만 아연실색하여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이런 몸으로 3년을 싸우다니?!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가?》

진찰결과에 의하면 이미 남조선에 있을 때 감옥에서 다친 상처가 심히 악화된 상태였다. 그리고 강한 외부적타격을 받은것으로 보아지는 척추는 당장 동강날듯 한 위험지경에 있었다. 분명 본인이 이러한 사실을 전쟁 전기간 숨기고 싸웠던것이다.

군의들은 사나이의 강인한 정신에 감동되여 눈물을 머금고 그를 지체없이 후방에 있는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병원생활이 3년이나 흘러 1956년에 이르렀다.

예민한 감각과 판단력을 가진 석윤기는 자기의 몸은 이미 다시는 조국보위초소에 설수 없게 되여버렸다는것을 직감하였다. 반미성전에 몸을 내대고 총잡은 병사로 삶의 마감까지 싸우리라 결심하였었건만 원쑤놈들의 매질에 으깨여진 육체가 더는 지탱 못할 형편에 이르렀으니 얼마나 통분한가.

(이렇게 물러서야 하는가? 나는 이제 무엇으로 어머니조국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가?)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채였다.

그러던 그는 우선 병마에서 벗어나는 일부터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였다.

(당면한 나의 전투임무는 병마와 싸워 이기는것이다. 일어나야 한다. 일어나기만 하면 할 일은 얼마든지 있을것이다.)

그는 병원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한편 몸을 추세우기 위한 치료운동을 부지런히 하였다.

어느 정도 몸이 호전되게 되자 그에게는 병원예술소조활동에 필요한 합창시, 재담, 촌극, 가사 지어는 소개자의 소개말까지 부탁받아 써주어야 하는 등 할 일이 매일같이 많이 생기였다. 이런 연고로 하여 그는 환자들과 의사, 간호원들 그리고 병원의 모든 관리일군들과 무척 가까워지고 친숙해지였다.

당시 이 병원 원장, 부원장으로 사업하던 항일혁명투사들인 림춘추와 리봉수가 석윤기의 강직성과 소탈함에 감탄하군 하면서 그가 마음에 들어 자주 이야기를 나누군 하였다.

어느날 석윤기는 림춘추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심장에 강한 충격을 받았다.

1951년 6월 30일 어버이수령님께서 전쟁의 중하를 한몸에 안으신 그 바쁘신 환경속에서도 문학예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

시기 위해 작가, 예술인들을 만나주시였다는 것이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작가, 예술인들에게 작품에서 우리 인민의 숭고한 애국심을 잘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애국심은 그 어떠한 추상적인 개념인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의 강토와 력사와 문화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며 그것은 또한 자기 고향과 고향사람들에 대한 애착심, 자기의 부모처자에 대한 애정에서도 표현되는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림춘추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은 석윤기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이 가슴에 차넘치였고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수 있었던 기본요인이 무엇이였는가를 순간에 깨닫게 되였다.

그는 쓰고싶었다. 우리의 애국심과 그 무진장한 위력에 대하여 쓰지 않고는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나 창작에 달라붙었다. 수송전사인 자기의 체험속에서 소

재를 찾았고 종자를 탐구하였다. 그는 창작을 곧 조국을 위하여 병사가 벌리는 전투로 간주하였다. 이렇게 씌여진것이 그의 처녀작인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이다.

이 소설은 발표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였다. 그것은 이 작품이 전쟁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요인이 《무기냐? 사람이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생동한 형상으로 얻어내였기때문이다.

포로된 미군대위 로버드슨은 자기를 호송하는 인민군 녀성군인인 경희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힘앞에서 전쟁의 운명을 결정하는것이 무기라고 하던 자기의 첫번째 대답을 포기하고 전쟁의 운명은 결코 기술장비에만 달려있지 않다고 두번째 대답을 한다.

군복입은 처녀의 용감한 모습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앞에 무릎을 꿇은 포로가 하는 두번째 대답은 곧 영웅적인 조선인민앞에 참패를 당한 미국이 찾아야 할 교훈적인 대답

인것이다.

석윤기는 이처럼 자그마한 단편소설에서 거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의 승패의 비결을 가장 생동한 형상으로 밝히였던것이다.

후날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읽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 작품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생활을 취급하면서 불과 몇시간동안에 두명의 등장인물들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대한 힘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철학적깊이가 있게 밝혔다고 하시면서 현대전쟁의 운명은 무기나 기술에 의해서가 아니라 군대와 인민의 정치도덕적품성, 수령의 사상에 의하여 하나로 단합된 군민의 정치사상적단결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작가 석윤기는 단편소설 《두번째 대답》을 내놓은데 이어 중편소설 《전사들》의 구상을 무르익히고 불가항력적인 의지로 본격적인 창작전투에 진입하였다.

그러면 그가 무엇에 힘을 얻어 병상에 누워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중편소설 《전사들》에 대한 창작을 시작하였는가?

이에 대하여 석윤기는 자기의 창작수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미리 말해두지만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나마 <전사들>을 쓸수 있은것은 내가 바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참가자였기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소설에 씌여진 전투나 혹은 인물들이 모두 내가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것들인가 하면 그런것도 아니다.

…그러나 소설에 담겨진것과 꼭같은 그런 이야기나 인물은 본적이 없지만 그 무엇인가 소중한것들을 많이 보고 많이 들었고 그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느꼈던것만은 사실이다.

나는 원쑤들이 눈을 까뒤집고 갈겨대는 포연탄우속을 뚫고 전선과 후방을 오가면서 준엄한 시련속에 있는 조국을 온몸으로 느끼였다. …어쨌든 그 시기에 나는 이 위대한 싸

움에 대하여 반드시 세상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후대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것을 막연하게나마 느꼈던것은 사실이다. 이것이 최초의 창작적충동이다. …》

작가는 이렇게 쓰면서 반드시 소설을 창작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생각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펼쳐주신 제1차 5개년계획의 휘황한 전망에 접하고 5년후의 조국을 그려보면서 이날을 위해 서슴없이 목숨을 바친 전우들과 전쟁의 시련에 대해 인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것을 자각했을 때 떠올랐다고 서술하였다.

그는 일분일초를 쪼개가며 모든 넋과 열정을 중편소설 《전사들》을 창작하는데 쏟아부었다.

그는 병석에서 소설을 창작하였다.

그는 붓을 달리기 전에 이런 구호를 자기앞에 내세웠다.

《한편의 작품창작—이것은 한번의 돌격전

이다.》

그는 침대에 엎디여 쓰기도 하고 모로 누워 쓰기도 하고 반듯이 누워 쓰기도 하였다. 반듯이 누워 쓸 때에는 만년필이 거꾸로 선 관계로 잉크가 내리지 않아 애를 먹군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매일 많은 량의 원고를 써내군 하였다.

드디여 중편소설 《전사들》이 완성되여 출판배포되자 독자들과 문단에서는 또다시 파문이 일어났다.

석윤기의 처녀작 《두번째 대답》을 대할 때부터 신인작가의 작품에 비낀 명석한 철학적견해와 독특한 창작기교를 범상치 않게 여겨보시였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번에도 중편소설 《전사들》을 깊은 관심속에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1962년 9월 22일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과 장시간에 걸쳐 중편소설 《전사들》이 거둔 사상예술적성과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는 중요한 담화를 하시였다.

작품에 그려진 시대적배경에 대하여서부터 소설에 심어진 사상적핵과 주제사상, 성격들과 사건들, 작품의 예술적견인력과 인식교양적의의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으로 분석하여주신 이날의 교시가 바로 《중편소설 <전사들>은 인민군전사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이다》라는 제목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문헌집에 수록된 유명한 로작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러한 관심속에서 석윤기는 보다 더 광활한 소설의 대지에로 활보해갔다.

그는 1961년부터 그리도 열망하던 작가로 되였다.

전쟁물주제의 새로운 소설을 내놓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사색에 사색을 거듭하던 석윤기는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을 구상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그무렵 지금껏 말썽을 일으키던 척추결핵이 갑자기 악화되였다.

악화되는 병세를 약화시키기 위해 매일과 같이 고름을 뽑아내였고 침대에 오래동안 누워있다나니 욕창까지 오게 되였다.

작가는 생명을 잃을번 하는 무서운 순간을 동반하는 대수술을 세번씩이나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런 형편에 직면해서도 창작의 붓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 말그대로 초인간적인 의지와 열정을 기울인 창작과정이였다.

안해인 림정아녀성의 다심하고 꾸준한 지성이 그가 쓰러지지 않고 글을 쓸수 있도록 지탱하여주었다.

이처럼 천신만고를 강의한 정신으로 이겨내면서 그는 끝내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제1부)을 1964년에 독자들앞에 내놓을수 있었다.

소설은 그것이 포괄하고있는 내용의 방대성과 생동하면서도 깊이있는 형상력으로 독자들

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였다.

더구나 작품전반을 관통하고있는 작가의 창작적인 사색과 높은 지성도, 다문박식한 언어구사는 소설문학의 새로운 발전을 예고하는 의미심장한것이기도 하였다.

장편소설 《시대의 탄생》 1부를 내놓은 다음 2부의 초고를 다 쓰고 추고하는 과정에 석윤기는 자기가 지금 무엇인가 분명히 놓치고있다는것, 놓쳤다기보다 모르고 작품을 창작하고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 골몰하게 되였다. 민족의 위대한 력사, 민족의 존엄과 긍지, 민족의 창창한 래일을 형상함에 있어서 근본을 놓치고있는것 같은 허전함이 그를 괴롭히군 하였다. 몇달을 두고 그 대답을 찾아 모대겼지만 생각만 더 깊어지고 수없이 가지를 뻗는 상념속에서 헤여날수가 없었다.

그의 이러한 모대김은 탁월한 스승의 가르치심을 받고서야 풀릴수 있었다.

수령형상문학의 개척자로, 담당자로

시대적으로 절박하게 제기되는 사회정치적 문제에 대한 형상적인 답을 두고, 인간의 정치적생명, 자주적운명에 대한 인간학적해명을 두고 작가 석윤기가 그 똑바른 방향과 방도를 찾으려고 애쓰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여러차례 작가들을 만나시고 주신 교시들을 접하게 되면서부터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작가들을 만나시여 주신 교시들에서 시대와 혁명앞에 지닌 작가의 사명과 임무에 대하여 거듭 일깨워주시였으며 오늘의 벅찬 현실을 반영한 좋은 작품들을 창작할데 대하여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특히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들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 이바지하는 작품을 많이 써내며 문학부문의 사업을 새롭게 혁명적으로 개선해나

갈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교시에 접하고 석윤기는 과연 자기가 쓴 소설들이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하는데 얼마나 이바지하였겠는가를 돌이켜보게 되였으며 작가구실을 바로하지 못하고있다는 자책감에 깊이 빠져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무엇인가 놓치지 말아야할 중심을 놓치고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있었던것이다.

우리 조국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이르렀던 1960년대 중엽, 당시의 현실은 우리 문학앞에 새로운 높은 요구성을 제기하고있었다. 하지만 주체문학건설에 대한 명확한 견해가 서있지 못했던 문학예술부문의 일군들과 창작가들은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그처럼 시급히 해결을 기다리는 이 과제를 옳게 풀어나갈수가 없었다.

석윤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바로 이러한 때 어버이수령님께서 지방현지지도의 길에서 작가들을 몸가까이 부르

시여 항일무장투쟁시기를 회상하시면서 며칠간에 걸쳐 귀중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였다.

그무렵 수령님을 보좌하시며 동행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 문학이 해결하여야 할 근본문제가 무엇인가를 깊이 통찰하고계시였다.

그러던 1966년 2월 7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시 작가동맹위원장을 만나시여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할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다.

《<새로운 혁명문학을 건설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문학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투적구호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그 필요성과 의의를 로동계급이 창조해온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발전과정과 결부시켜 과학원리적으로 심오하게 밝혀주시였다. 그리고 그 방향과 방도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깨우쳐주시였다.

이 교시는 즉시에 석윤기를 비롯한 작가들에게 전달되였다.

작가동맹으로 급히 나오라는 련락을 받고 무엇인가 중대한 사변이 있다는것을 예감한 그는 다른 작가들과 함께 초조한 마음을 안고 기다리였다.

이윽고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전달하기 위하여 방에 들어온 작가동맹위원장의 얼굴은 흥분으로 붉게 상기되여있었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령적인 교시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자자구구 힘을 주어 전달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전달받는 석윤기의 망막은 뿌옇게 흐려지였다. 가슴이 터질듯 한 흥분과 환희로 눈물이 치솟아올랐던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하신 교시는 눈부신 빛발처럼 작가의 눈앞을 환하게 밝혀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을 형상한 새로운 혁명문학을 지난 시기처럼 단편적인 면을 내용으로 한 짤막한 시나 단편소설 같은것

을 몇편 쓰는 식으로 창작할것이 아니라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으로 수령님의 혁명력사전모를 볼수 있게 위대한 사상리론가로서의 수령,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으로서의 수령,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수령을 전면적으로 형상한 혁명적대작을 많이 써내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을 문학작품에 담는것은 현시대의 성숙된 요구이고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일뿐아니라 새로운 혁명문학이 수행하여야 할 사명과 임무라고 가르쳐주시였다.

이 가르치심을 전달받는 순간 석윤기는 지난 시기 작가로서의 임무를 다하느라 하면서도 창작사업에서 무엇인가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던 사실과 그 해답을 못 찾아 모대기던 나날들이 돌이켜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바로 이것이다!》 하고 속으로 탄성을 올리였다.

석윤기는 인생의 새로운 걸음을 떼게 된다

는 환희로 하여 북받치는 흥분을 어쩔수 없었고 그처럼 책임적이고 영예로운 창작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고싶은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하기에 그는 창작실로 돌아오는 즉시에 어버이수령님의 고매한 풍모를 형상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창작에 달라붙었다.

이 시기 작가동맹에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령형상소설작품창작을 전문으로 하는 창작집단(오늘의 4.15문학창작단의 전신)이 무어졌다.

이때 석윤기는 그렇게도 바라마지 않던 이 창작집단에 망라되여 창작활동을 벌리게 되였는데 참으로 이것은 작가인 그에게 있어서 영광이고 행복이였다. 그는 밤잠을 잊고 펜을 달려 짧은 기간내에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탈고하여 심의에 제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 소설의 사상적내용

과 이야기줄거리, 기본인간관계와 성격, 력사적사실과 허구문제, 그밖에 중요한 세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밝혀주시였다.

그는 가장 위대한분의 보살피심속에 자기가 창작생활을 하고있다는 행복감에 젖어 밤에 낮을 이어 완성작업을 다그치였다. 그리하여 1970년 여름 이 작품을 내놓을수 있게 되였다.

《혁명가의 사랑은 혁명을 하는데서 표현되여야 한다.》는 사상적알맹이를 틀어쥐고 수령님을 태양으로 우러르며 해바라기와도 같이 그이를 따라 항일의 대오가 결성되는 과정을 그리고있는 이 소설은 우리 혁명의 근본문제를 주제적과제로 삼아 풀어낸 작품이였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은 설정된 주제사상적과제는 물론이고 그 전개방식과 묘사수법에 있어서도 종래의 소설들과는 대조를 이루는 혁신적경지를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석윤기는 주인공 유철의 성격과 그 성장과정에 작가로서의 자기 리상과 념원을 풍부하게 체현시켜 혁명을 하려면, 사람답게 살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를 생활적으로 독특하게 형상해내였다.

작가 석윤기에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날로 커만 갔다.

1970년 가을부터 년말까지 석윤기는 간호원 안영애를 원형으로 하는 영화문학집체창작에 망라되여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게 되였다. 그리하여 그의 운명에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였다.

이에 대하여 작가는 어느 한 회상실기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태고의 인간들이 불을 발견한 그날도 외관상은 평범한 날일수 있었을것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날이 있은 다음부터 인류의 생활은 거대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내가 나의 창작생활에서 그러한 불을 발견하게 된 그날도 아무런 예고없이 그리고 외관상 매우 조용하게 찾아왔던것이다.》

작가의 이 말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 자기 운명이 찬란한 향도의 빛을 따라 전환점을 맞이한데 대한 환희와 격정에 대한 토로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영화문학 《한 간호원에 대한 이야기》가 가지고있는 결함과 그 극복방도에 대하여 차근차근 일깨워주시면서 우리 작가들이 무엇때문에 애쓰며 창작해야 하는가를 문학의 사명과 결부시켜 그들에게 깨우쳐주시였다.

그이의 교시 한마디, 한마디는 작가 석윤기의 어두운 구석을 속속들이 비쳐주는 눈부신 불빛이였다.

그 뜨겁고 자애로운 빛발은 그 이후 작가에게 더더욱 가깝게, 더 전격적으로 비쳐들었고 그것으로 하여 작가는 수령형상문학의

믿음직한 담당자로 새로운 혁명문학건설의 전초선에 설수 있게 성장하였다.

197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몇명의 일군들과 함께 작가 석윤기를 곁으로 불러주시였다. 그것은 작가에 대한 그이의 특별한 믿음과 사랑의 표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밤이 깊도록 열정에 넘치시는 음성으로 문학예술건설에 대한 문제, 조국통일과 혁명발전의 전망문제 등 참으로 강령적의의를 가지는 귀중한 교시들을 주시였다.

작가는 그렇듯 높은 신임이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귀중한 교시를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부지런히 받아적었다.

그러던 그는 문득 펜을 멈추었다. 그이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그가 창작한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을 다 보시였다고 하시면서 높이 치하해주시였던것이다.

그는 놀라며 손이 굳어져버렸다.

(자신께서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그 작품을 친히 완성하여주시고도 이런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다니…

나는 정말 너무도 행복하구나!)

석윤기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후 한달이 지난 어느날 한 일군이 찾아와 긴장한 창작전투를 벌리고있는 석윤기에게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을 전달하겠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석윤기선생의 약한 몸이 걱정되시여 여러차례 교시를 하시였는데 그의 치료에 알맞는 좋은 약들을 알아보시고 손수 구하시여 보내시면서 튼튼한 몸으로 훌륭한 작품을 완성하라고, 앞으로도 애로되는것이 있으면 서슴없이 제기하라고 하셨다는것이였다.

석윤기는 동지들의 열렬한 박수속에 그 귀중한 선물을 받아안았다.

작가의 가슴속에서는 그이에 대한 흠모의 정이 대하처럼 굽이쳐흘렀고 감격과 격정이 쇠물처럼 끓어넘쳤다.

그리하여 그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소설로 옮긴데 이어 총서 《불멸의 력사》에 속하는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1976년), 《대지는 푸르다》(1981년), 《봄우뢰》(1985년) 등을 련속 명작으로 창작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형상한 작품창작에서 특출한 공로를 세웠으며 그 과정에 당의 크나큰 신임을 련속 받아안았다.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4.15문학창작단 단장, 작가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수령형상창조에 온몸과 넋을 다 태웠다. 하여 석윤기는 분에 넘치게도 **김일성**훈장을 수여받았고 **김일성**상계관인으로, 로력영웅으로 되였다.

석윤기는 그 누구보다도 병약한 몸이였고

고생도 많이 하였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였다.

그러면 그에게 무엇이 잠재되여있었기에 그처럼 초인간적인 정력을 기울여 그리도 많은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었겠는가.

여기에 그가 남긴 한편의 시가 있다.

이 시는 그가 안고 산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나의 소원

나의 소원은…
죽어도 버릴수 없는 나의 소원은
밤이나 낮이나 그리움에 젖어 목메이는
간절한 간절한 마음이여라

…

고무풍선처럼 가슴부푸는 시절도 있어

발명가가 된다고 색종이에 청사진 흉내를
　내고
때로는 월계수 머리에 두른 시인이 부러워
금박칠한 문호들의 선집을 끼고 다닌적도
　있었더라

허나 싸움의 불길속에 철이 들고
　고무풍선은 꺼졌나니
불비와 시체를 헤치며 쓸쓸한 광야를
　걸어갈 때…
잃어진 내 어머니, 어린 동생을 생각하며
숯덩이가 된 내 가슴에 새로 움튼 소원은
…
…통일된 내 조국에 펼쳐질
무수한 상봉을 바라보며
마음껏 울어보는것

나의 소원은
깨끗하고 소박한 나의 소원은

원쑤가 불태우고 짓이겨놓은 나의 소원은
친애하는 그이의 품에 안기여 소생의 봄을
　맞이했나니
아, 나래치라 꿈이여! 희망이여!
한없이 부풀어오르라 나의 소원이여!
…

…
그리하여
자나깨나 잊을수 없는 나의 소원은
죽어도 버릴수 없는 나의 소원은
만민의 행복
조선의 영예
이 세상 모든 소원의 구심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건강이여라!

이 시는 1985년 2월 16일 아침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작가가 그이를 우러러 쓴 시이다.

석윤기의 심장속에 가득차흐른 이 넋의 노래, 소원의 송가는 정녕 그가 살아온 전 생애의 힘이였고 목적이였다.

다시한번 그 소원의 노래를 되새겨보자.

그는 자기 가슴에 새로 움튼 소원은 《통일된 내 조국에 펼쳐질/ 무수한 상봉을 바라보며/ 마음껏 울어보는것》이라고 하였다.

그가 어린시절에 품었던 《깨끗하고 소박한》 그 모든 소원은 저 남녘땅에서 너무도 가혹한 세례를 받아 그의 가슴속에, 그의 온 육신에 처참한 상처와 고통만을 남겨놓고 사그라졌었다. 그러나 그 준엄한 생활의 언덕에서 그가 한 운명의 선택은 옳았다.

《원쑤가 불태우고 짓이겨놓은》 그의 소원은 은혜로운 태양의 품에 안기여 소생의 봄을 맞이했으니 그는 불의의 세상이 안겨준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인간이 창조하고 누릴수 있는 보람과 행복의 절정에 올랐다. 이제 남은 소원은 단 하나, 통일이였다.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소원의 구심점》은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이 간절한 통일의 소원도 오로지 그 품에서만 이루어질것을 확신하면서 그이의 건강을 축원하며 인생의 막을 내린것이였다.

평양시교외의 신미리에 자리잡은 애국렬사릉에서 석윤기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날을 기다리며 저 남녘의 고향땅을 바라보고 있다.

【단편실화소설】

풍 옥 란

현 명 수

기자선생이 《자연환경과 생명》이라는 글을 쓰기 위해 환경보호연구사들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소. 그리고 풍옥란을 연구한 나를 만나려고 왔다니 정말 반갑소. 선생도 알다싶이 풍옥란은 물옥잠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먹이풀로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의 열대와 아열대지방이요. 관상용으로 아시아지역에 퍼지기 시작한것은 19세기 말엽, 우리 나라에 들어온것은 1950년대말쯤 된다고 하오. 풍옥란은 해빛과 물만 있으면 잘 자라 정보당 500t정도 생산할수 있는데 질산과 린산 등 영양염류뿐아니라 중금속이온들도 빨리 흡수하므로 오수나

음료수를 정화하는 기능이 매우 높다오. 조단백질뿐만이 아니라 메티오닌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필수아미노산이 들어있어 집짐승의 먹이로도 리용되고 비료를 생산하고 섬유질로 종이를 생산하는 등 그 리용가치는 방대하오. 그런데 이전에는 어항속에서 물고기알받이로 쓰이던 관상용풀이 환경보호사업과 축산업에 유용하게 쓰이게 되기까지는 여러가지 사연이 있다오. 선생의 취재목적이 단순히 과학연구사업에 대한것이 아니라 그것을 개발한 과학자들의 생활과 관련한것이라니 나의 이야기가 좀 길어질것 같소.

내가 풍옥란을 연구할수 있은데는 나의 아버지의 생애와 많은 련관이 있다오. 내 나이가 지금 90을 바라보고있으니 아마 한세기에 가까운 퍽 오래전의 이야기로 시작되겠소.

어떤 사람들은 태여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지기도 하는데 바로 나의 이름도 출생하기 여러달전에 지어졌소.

그날은 남해의 마산항에 류달리 큰 폭우가 쏟아지던 깊은 밤이였소.

어둠이 깃든 항구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뿌연 거품을 가득 문 음산한 파도는 와— 와— 소리치며 기슭을 후려쳤지. 닻이며 바줄, 작살, 그물 등 어구를 놓아두는 허술한 창고의 한구석에서 비릿한 물고기기름을 태우는 등잔을 작은 상자우에 올려놓은 두 사나이가 해풍에 거밋하게 탄 볼을 맞대다싶이 하고 앉아있었는데 그중 한 사나이가 바로 나의 아버지 김명규라오. 밖에서는 비바람에 삭은 함석판이 들썩거리고 금시 무너져내릴듯이 서까래가 찌그럭거리면서 뽀얀 먼지를 푸르르 떨구었으나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악보를 짚어가며 아동가요를 소곤소곤 부르고있었더군.

거츤산 등성이 골짜기로
봄빛은 우리를 찾아오네

아가는 움트는 조선의 꽃
아가는 움트는 조선의 꽃
…

그 노래는 마산의 어느 시인이 지은것이였는데 아버지는 류달리 가사가 마음에 들었던거요. 아마도 늦장가를 들어 바야흐로 첫 아기를 보게 된 아버지의 심정이 깃든탓인지도 모르오.

그들이 흥그럽게 노래를 부르며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찰나 별안간 창고문이 와당탕 소리를 내며 벌컥 열리더니 절커덕 하고 장총의 격발기를 당기는 소리가 소름끼치게 들려왔다누만. 이어 《누가 김명규인가?》 하는 거친 질문이 날아왔소. 일본경찰들이였던것이요.

《나요.》 하고 아버지가 한걸음 나서자 포승을 거머쥔 두명의 순사가 달려들어 다짜고짜로 몸을 칭칭 묶고는 일본도를 절컥거리며 서툰 조선말로 씨벌거렸소.

《네놈이나 야학을 운영한답시고 불온사상이나 선전하고 적색로조를 조직한 나쁜 놈이다!》

억압받고 천대받는 식민지의 자식들에게 조선글을 배워주고 뼈빠지게 일을 하여도 빈주먹밖에 돌아오지 않는 항구의 로동자들을 묶어세운것이 죄가 되는 비운의 세상이였소.

아버지가 일본경찰들에게 끌려나갈 때에야 어쩔바를 몰라하던 곁의 청년이 《선생님!》 하고 매달렸는데 아버지는 헌헌하게 웃으며 말했다오.

《아가는 움트는 조선의 꽃! 참, 좋은 구절일세.》

그는 순사들의 우악스러운 손에 등이 떠밀려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일렀소.

《만일 내가 인차 돌아오지 못하면 애엄마에게 전해주게. 태여나는 아기가 딸애라면 이름을 적란이라고 지으라고.》

비오는 밤, 푸른 번개불이 검은 하늘을 쭉 내리가르는 속으로 아버지는 비록 포승줄에 꽁

꽁 묶이였으나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음을 내짚었지.

아버지가 그렇게 경찰서로 끌려간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 무학산자드락의 작은 오막집에서 새 생명이 고고성을 울리며 태여났고 그 아기의 이름은 김적란으로 불리우게 되였는데 그게 바로 나라오.

째진 가난속에서도 나는 큰 병이 없이 무럭무럭 자랐소. 나무작대기를 휘휘 두르며 무학산기슭이 좁다하게 뛰여다니는 계집애를 보며 이웃들은 사내로 태여나려다가 바뀌였다며 혀를 차기도 했다오. 그 계집애가 대충 둘러친 울바자에 기여오르다가 바자를 넘어뜨린 날 저녁 나의 어머니 리정우는 가는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했다오.

《적란아, 래일 아침일찍 네 아버지를 만나러 가자.》

나는 울바자를 넘어뜨린 잘못을 따지는줄 알고 목을 움츠렸다가 아버지를 찾아가자는 말에

너무 기뻐 깡충깡충 뛰였소.

태여나 네해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도 보지 못한 나였소. 다른 집의 애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에게만은 없는가고 물으면 어머니는 네 아버지는 멀리 출장을 갔다고 하였다오. 언제 돌아오는가고 다시 물으면 열밤 자면 온다고 하였는데 손가락을 꼽아 겨우 셈을 세는 어린아이로서는 그 열이라는 수가 퍽 컸지. 그런데 그 열에 열이 더해지고 또 열이 보태여져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소. 그래도 언젠가는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희망이 어린 나의 가슴속에 소중한 꿈으로 자리잡고있었다오.

이튿날 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부산행 배에 올랐소. 처음 바다길에 나선 나는 파도에 배가 기우뚱거릴 때마다 흠칫거리며 몸을 바들바들 떨었다누만. 그때마다 어머니는 나를 앞가슴에 꽉 품어안아주었소. 그 포근한 품에서 산토끼처럼 놀란 가슴은 차츰 진정되였고 합포만(오늘의 마산만)을 둘러싼 무학산일대의 푸른

산천을 동심이 비낀 눈으로 바라볼수 있었소.

아침해살에 은빛으로 반짝이는 합포만의 잔물결을 가르며 달리는 자그마한 선실의 창문으로 그림처럼 바라보이는 웅장한 무학산은 마치 학이 보란듯이 나래를 펴고 나는듯 한 모습으로 마산시가를 품어안고있었는데 참으로 아름다웠소. 항구의 앞쪽에는 사시장철 푸르른 아담한 섬이 있었는데 배는 고동소리가 길게 울린 뒤 이 섬을 돌며 바다로 나갔지.

너울거리며 따라오는 갈매기들, 아득한 수평선, 가도가도 끝이 없는 망망한 바다, 흰갈기를 날리며 밀려오고 배전에 부딪쳐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 퍽 어릴적의 일인데 지금도 꿈속에서 그때 일이 떠오르군 한다오.

어머니와 나는 흔들거리는 선실에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날이 어두워서야 부산항에 내렸소.

항구마을에서 하루밤을 보내고 이튿날 부산형무소로 떠났소. 뙤약볕이 이글거리는 한낮이

되여 거무틱틱한 철문이 찌그럭찌그럭 기분나쁜 소리를 내며 열려서야 우리는 형무소마당을 거쳐 면회실로 들어갈수 있었소. 우리 모녀가 어두침침한 좁은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한식경을 기다렸는데 불현듯 어머니는 가는 목소리로 《적란아, 아버지가 나오신다.》라고 속살거리는것이였소. 나는 눈이 둥그래져 방안을 휘둘러보았으나 어머니와 나밖에는 아무도 없었소. 그때 철창을 박아놓은 맞은편의 문이 찌꿍 열리더니 눈확이 확 꺼지고 볼편의 살이 쑥 빠진,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얀 반백의 사나이가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을 따라 들어왔소. 그 문으로 눅눅한 곰팽이내가 가득 배인 써늘한 바람이 씽 불어왔는데 나는 놀라 왕 하고 울음을 터뜨렸구만.

어머니의 눈시울이 벌개지더니 눈물이 글썽하니 고여올랐는데 입술을 옥물고 면회실가운데 가로놓인 쇠창살앞으로 나를 안고 가 《아버지다, 아버지!》라고 거듭 말하며 추겨올렸

소. 그런데 나는 겁에 질려 어머니의 젖가슴만 파고들었지.

아버지는 밝은 인상을 지으려고 애썼는데 해빛을 보지 못한 창백한 얼굴이 슬프게 이그러지는것만 같았소. 아버지는 주먹 하나도 드나들지 않는 좁은 쇠창살사이로 앙상하게 여윈 손가락을 겨우 세개 내밀어 나의 손을 쥐려고 하였지만 나는 그게 더 무서워 손을 움츠리기만 하였다오.

하는수없이 나를 내려놓은 어머니는 쇠장대같은 철창사이로 애절한 정의 시선을 주고받으며 5년간의 해후를 나누었소. 5분간의 면회시간은 너무도 짧았소. 《면회 그만!》 하고 간수가 짧게 구령치자 어머니는 《여보!》 하고 애쉽게 소리쳤고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여 작별인사를 보내고는 돌아섰소.

그때 나도 모를 충동에 《아버지!》 하고 불렀다오.

등을 돌리던 아버지는 흠칠 놀라더니 몸을

돌렸소. 그에게는 생후 처음으로 들어보는 아버지란 부름이였으니까. 좀전보다 확 밝아진 여윈 얼굴이 《적란아!》 하고 기운차게 부르며 다가왔소. 나를 안은 어머니도 창살가까이로 바투 붙어섰고 나는 철창사이로 앙증한 손을 들이밀었지. 아버지는 그 손을 꽉 쥐면 부서지는 유리보석처럼 소중히 감싸쥐고 따스하면서도 부드러운 입술로 정겹게 부비면서 《적란아, 앓지 말고 잘 자라거라!》 하는 말을 남기고는 검은 옷을 입은 간수에게 끌려나갔소.

나는 어머니품에 안긴채 철창사이로 아버지가 사라진 문을 오래도록 쳐다보았소.

형무소에 아버지를 남겨놓은채 먼지이는 길을 타박타박 걸으며 돌아오던 나는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왜 우리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가고 물었소.

그때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소.

《세상을 잘못 만난탓이지. …》

내가 말뜻을 리해하지 못해 눈이 올롱하여 쳐다보자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더니 나의 옷매무시를 바로잡아주며 나직이 속삭였소.

《적란아, 네 아버지는 죄를 지어서 형무소에 잡혀있는게 아니란다. 아버지는 빼앗긴 나라를 찾고 가난한 사람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싸우시는 좋은분이란다. 절대로 죄인이 아니야. 네가 크면 그런 아버지를 모시고있는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게다.》

한동안 머루알같은 까만 눈동자로 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던 나는 고개를 끄덕이였다오.

이렇게 철창앞에서 헤여진 우리 가족은 이듬해 12월 아버지가 만기출옥을 하여서야 함께 모여살게 되였소.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한동안 병치료를 받으며 두문불출하다가 갑자기 집을 떠났소. 달포가 지나서야 새날은 로동복차림으로 땀을 철철 흘리며 돌아왔는데 몸은 무척 지쳐있었으나

얼굴은 전에 없는 활기에 넘쳐있었다오.

그날 저녁 여러 사람이 집으로 오고 어머니는 나의 손목을 잡고 마당주위를 살피며 돌았소.

별빛이 잔잔히 내리비치는 마당가에서 나는 문틈으로 새여나오는 보천보전투며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소곤거리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오.

며칠후 아버지는 《동아일보》 마산지국 기자로 취직하였고 1년후에는 지국장이 되였소. 집으로는 기자들과 신문배달부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뒤를 쫓아온듯싶은 일본순사들도 문밖을 어슬렁거리며 바자안을 수상쩍게 기웃거리다가 헛물만 켜고 돌아가기도 하였다오.

아버지는 신문사의 지국장일을 보면서 신문배달도 하였소.

어느날 배달가방을 메고 나가는 아버지의 뒤모습을 보며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소.

《어머니, 아버지는 왜 저런 가방을 메고 다

니나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뒤모습을 정찬 눈으로 바래우며 말했소.

《아버지는 지국장일을 하면서도 로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신단다. 그래서 아버지는 바쁘고 사람들은 그런 아버지를 존경하고 따르는 것이란다.》

신문사의 지국장으로 일하면서 기사도 쓰고 신문배달도 하는 아버지는 무척 바빴소. 밤에는 밤대로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단칸방에서 살던 우리 모녀는 그때마다 토방에 나와 모기를 쫓으며 밖을 살피군 하였소. 달빛이 고즈넉이 내리비치는 토방마루에서 나는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잠들 때도 있었다오. 깨여보면 다음날 아침인데 어느결에 아래목에 낡은 모포를 덮고 누워있더구만.

아버지가 지국장일을 본지 한 1년쯤 지나서인것 같소. 봄날 나는 아버지를 따라 진해의 봄꽃구경을 가게 되였소. 나에게는 두번째로 되

는 바다려행이기도 했지.

산들바람에 옷자락을 날리며 배를 타고 가는 로정은 이전에 어머니와 함께 가던 설음많고 고달픈 배길과는 너무도 달랐소.

진해부두에 배가 닿자 나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나무다리를 건너 부두에서 멀지 않은 탑우에 올랐소. 그곳에서 온 시가지가 화려한 봄꽃으로 덮인 풍경을 내려다보았고 꽃나무들이 무성한 넓은 벌에 앉아 점심을 먹었소. 보물찾기가 시작되여 또래의 아이들과 함께 보물을 찾아나섰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와 청장년들은 보이지 않고 녀인들만 모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있더구만.

서산으로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해서야 돌아온 아버지는 나를 껴안으며 물었소.

《꽃들이 아름답더냐?》

나는 시무룩하여 머리를 끄덕이였소. 아침에 아버지는 나와 종일토록 함께 놀아주겠다고 손가락까지 걸며 약속을 하였지만 한나절동안이

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것이요. 아버지도 내가 시뻐둥한 리유를 잘 알고있었지. 그래서 나의 기분을 띄워주려고 더 살뜰히 물었소.

《적란아,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소. 그러면서도 호기심이 생겨 빠끔히 올려다보았소.

아버지는 선량한 미소를 지었소.

《그건 바로 우리 적란이지.》

나는 봉오리같은 작은 입술을 비죽거렸소.

《피— 내가 뭐 꽃이나?》

《그럼.》 하며 아버지는 말했소.

《봐라, 네 이름은 적란, 우리 조선사람들은 예로부터 아름다운 꽃을 란이라고 불렀단다. 아버지는 네가 백사장에 피여나는 붉은 해당화처럼 아름다운 꽃이 되라고 적란이라고 지은것이란다.》

《음— 그럼 내가 제일 이쁜 꽃이나?》

《그럼, 우리 적란이야말로 이 아버지의 제

일 이쁘고 자랑스러운 꽃이지.》

《야, 좋다. 아버지 안아줘요!》

아버지는 나의 작은 몸을 닁큼 안아올리며 《우리 적란이 노래 한번 부를가?》 하고 속삭였소. 나는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 마산의 부두가에 내려서며 아버지와 함께 노래를 불렀소.

…

오늘은 이 동산 꾸며놓고
래일은 이 땅에 향내 펴칠
아가는 봉오리 조선의 꽃
아가는 봉오리 조선의 꽃

…

노래를 부르며 나는 노을이 불타는 마산의 하늘가를 황홀하여 바라보았소. 붉은 구름이 몽키고 타래친 모양을 보며 거대한 꽃봉오리 같다고 생각했지. 그리고 나의 이름에 아버지의 애틋한 사랑과 꿈이 깃들어있음을 새삼스

레 느끼고있었다오. 그런데 그 이름때문에 아버지가 또다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리라고 어찌 알았겠소.

학교에 입학한 나는 열심히 공부하였소. 내가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오면 그날은 우리 가난한 집안의 명절이였소. 아버지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견해하였고 어머니도 나를 꼭 껴안고 볼을 부벼주군 했소. 그래서 나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언제나 전교의 앞자리를 차지했소. 그러나 식민지의 학생에게는 커다란 고민거리가 생겼지.

새로 온 요시가와라는 일본인교원은 출석을 부를 때마다 나를 쏘아보았고 사소한 트집을 잡아 교실에서 쫓아내군 하였소. 그 리유가 다름아닌 김적란이라는 성과 이름때문이였소. 당시 학생들은 이름을 일본식으로 개명하고 등교하지 않으면 안되였소. 일제는 1939년 11월 조선사람을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 고유한 성과 이름을 없애고 그것을 일본식으로 고칠데

대한 《제령》이라는것을 조작공포하고 조선사람들을 강제로 《창씨개명상담소》로 끌고 가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칠것을 강박하였소.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자녀에 대하여서는 각급 학교의 입학과 진학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던것이 당대의 현실이였소.

나는 수강태도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구실을 잡아 수업에 참가시키지 않고 벌을 세우고 지어 잡일까지 시키는 학교생활이 점차 싫어졌소. 그래서 마을언니들을 따라 바다기슭을 누비며 조개잡이를 하여 시장을 돌며 팔기도 하였는데 그 일을 알게 된 어머니는 속을 썩였소.

그러던 어느날 집을 찾아온 일본인교장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이름때문에 수업에 참가하지 못하는것이 가슴아프다는 값싼 동정을 하면서 교정에서만 일본이름을 부른다며 어머니의 손을 끌어당겨 《창씨개명》문건에 지장을 누르게 하였구만. 이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아버지는 격노하여 소리쳤소.

《차라리 손가락을 잘라버릴게지 그게 어떤 문건이기에 지장을 누른단 말이요. 나라를 빼앗기고 사는것만으로도 통분한데 이제는 성과 이름마저도 빼앗겨야 하는가!》

아버지는 그길로 곧장 학교로 달려가 막아서는 교장을 밀어제끼고 강제로 작성된 문건을 찾아내여 갈기갈기 찢어버렸다오.

그 이튿날 동틀무렵 또다시 긴칼을 절컥거리는 일본순사들에게 끌려 아버지는 집을 나섰소.

《아버지!》 하고 울며 따라서는 나를 애틋하게 바라보던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소.

《적란아, 넌 꼭 조선의 꽃이 되여야 한다.》

이 한마디의 말을 힘주어 남긴채 아버지는 감옥으로 또다시 끌려갔소.

아버지가 잡혀간 이후 나는 이를 악물고 학교로 나갔으나 졸업을 앞두고 끝내 학교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되였소. 아마도 1945년 3월 중순경이였던것 같소. 나를 부른 요시가와는

《너는 공부는 잘하지만 상급학교추천을 못 받았으니 참 안되였구나. 대신 이번에 <정신대>가 조직되여 일본으로 가는데 네가 선참으로 나서는게 어떻냐. 네가 찬성만 하면 학급의 많은 녀학생들이 따라나설게다.》라고 얼리는것이였소.

그때 나는 속이 울컥하더구만. 나는 요시가와에게 당돌하게 대꾸했소.

《나는 아버지가 <불온분자>라고 하여 상급학교추천도 못 받았는데 <정신대>로 일본에는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난 안 갑니다.》

요시가와는 《칙쇼!》 하고 책상을 탕 내리쳤지.

《너 누구를 믿고 그따위 버릇없는 행동을 해. 당장 어머니를 데려와 사죄하지 않으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줄 알아라!》

그때 난 왜서인지 조금도 겁나지 않더구만. 나도 모르게 《차라리 제 손가락을 잘라버리겠습니다.》 하고 씹어말했는데 요시가와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하더군. 그러

거나말거나 나는 가방을 둘러메고 교정을 떠났소. 그렇게 교문밖을 나서니 여느때없이 아버지가 더욱 그리웠소. 딸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지 않겠다고 하여 아버지를 또다시 감옥으로 끌고 간 왜놈들이 미웠소. 그리고 세상을 잘못 만난탓이라던 어머니의 말이 어렴풋이 리해되더군.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상급학교에는 갈수 없는 세상! 나는 그 세상이 정말 싫었소.

그로부터 몇달이 지나 왜놈의 세상이 결판이 날줄이야.

나와 어머니는 옥중에서 보내온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마산에서 얼마 멀지 않은 함안군의 어느 한 광산마을로 옮겨갔소. 그곳 광산마을의 의무실에서 나는 허드레일을 돕다가 해방을 맞았소.

그날 읍거리로 나간다고 떠났던 의사가 류달리 환한 얼굴로 의무실로 들어서며 《적란아, 기쁜 소식이 있는것 같애. 놀라운 소식이!》 하고 말하는것이였소. 나는 붕락이나 락반과 같은 사

고로 매일 사람이 다치고 죽어나가는 이 죽음의 생지옥같은 광산마을에 기쁜 소식이라니 대체 무슨 말인가 하여 의아쩍었소. 그때 귀를 의심할 정도로 《조선해방 만세!》, 《만세!》 하는 요란스러운 함성이 광산마을을 뒤흔드는것이였소.

내가 깜짝 놀라는데 의사는 《적란아, 빨리 나가자.》 하고 재촉하며 먼저 밖으로 나가는것이였소. 그를 따라 뛰여나가보니 광산갱구쪽에서 간데라를 든 로동자들이 달음박질을 하며 내려오고 하모니카같은 집들에서는 로인들, 녀인들, 아이들이 문을 박차며 나오는것이였소. 그 사람들속에 끼워 광산마을 운동장으로 달려갔소. 가보니 연탁에서 한 로동자가 마산에서 가져온 《특보》를 큰소리로 읽었는데 내용인즉은 8월 15일 낮 12시 일본이 항복하였다는 소식이였소.

사람들은 《조선해방 만세!》, 《조선독립 만세!》를 목이 쉬도록 웨쳤소. 군중들속에는 흐느껴우는 사람, 실성한 사람처럼 웃는 사람,

가슴을 치는 사람, 춤을 덩실덩실 추는 사람도 있었소. 지나간 력사의 갈피속에 수난많은 광산로동계급의 피눈물나는 인생길, 이 기쁜 날을 보지 못하고 생죽음을 당한 혈육들을 그리는 사람들의 심정이 오죽하였겠소.

그때 나의 머리속을 스친것도 (일본이 망했으니 아버지가 돌아오겠구나! 이젠 성과 이름을 바꾸지 않아도 공부할수 있겠구나!) 하는 기쁨과 희망이였소.

며칠후 감옥에서 풀려나와 고향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소식을 받고 나와 어머니는 광산을 떠났소.

우리가 마산으로 돌아오던 날 요시가와는 겁에 질린 까투리마냥 목을 움츠리고 일본으로 가는 배편을 찾아 부산을 향해 달아났다고 하오.

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소. 마산시가너머로 은물결 잔잔히 반짝이는 합포만이 바라보이는 무학산기슭의 아담한 곳에 자리잡은 교정

에서 조선말로 이야기하며 조선글과 조선노래를 배웠소.

1945년 10월 마산에서는 군중대회가 열렸소. 그때 나의 아버지는 연탁에 나서서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 평양시민들앞에서 하신 개선연설을 전달하였소. 아버지는 위대한 **김일성**장군님께서는 해방된 조선의 주인은 바로 조선인민이며 지난날 일제의 식민지통치밑에서 갖은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온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이 새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한다고, 전체 인민이 정치에 참가하며 근로대중이 잘살수 있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부강한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고 하면서 모든 시민들이 한사람같이 새 조국건설에 떨쳐나서자고 호소하였소.

그 연설에 시민들은 열광적으로 환호하였소.

마산에는 건국준비위원회가 새로 조직되였는데 아버지는 위원장으로 임명되였다오.

해방과 함께 우리 가정에도 새로운 행복이 찾아왔소.

아버지는 새 사회건설로 바쁜 속에서도 저녁이면 나의 숙제장을 직접 검열하군 하였소. 내가 첫 학기 최우등성적증을 가져왔을 때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며 말하였소.

《우리 적란이가 공부를 참 잘하누나.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해. 그래야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

식사때면 다심한 사랑을 담아 살뜰하게 말하군 했다오.

《적란아, 밥은 꼭꼭 씹어먹어야 한다. 백번을 씹어먹어야 오래오래 건강할수 있단다.》…

그러나 인민이 주인된 새세상을 건설하여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살아보자던 꿈은 한찰나의 무지개처럼 사라져갔소.

남조선에 군정을 실시한 미국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저들의 군대와 앞잡이들을 내몰아 건국준비위원회의 간판을 부셔버렸고 건국준비위

원회의 핵심성원들은 이전날 일제의 턱밑에서 순사질을 하던 경찰들에게 또다시 련행되여갔소. 해방직후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바깥출입도 못하던 친일자본가, 친일지주들이 미군정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하여 테로와 학살을 일삼았소. 그들은 미군정이 《미곡수집령》을 발표하자 경찰들을 끼고 농민들의 식량마저 강제로 수탈하였소. 마산에서도 식량가격이 폭등하여 사람들은 쌀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고 무학산의 풀뿌리와 나무껍질로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다오.

사람들의 생활은 날을 따라 도탄에 빠져들었소.

마산바다가의 고삭은 창고에는 일본에서 조국으로 귀국한 동포들이 살고있었는데 그들은 징용, 징병으로 끌려갔던 조선사람들중에서 겨우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거나 그들의 후손이였소. 모국을 찾아온 그들이였으나 마산사람들조차 쌀을 구하지 못하여 썩은 밀가루로 수제

비국을 끓여 때식을 에우는 때였던지라 굶주리며 죽어갔소.

1946년 가을의 어느 새벽 아버지가 집을 먼저 나선 후 어머니는 나를 깨우더니 저으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였소.

《적란아, 만일 밤늦게까지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오지 못하면 옆집 엿장수아주머니네 집에 가있거라.》

나는 어리둥절하여 물었다오.

《어머니, 갑자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어머니는 비장한 결심을 한듯 나를 바라보다가 꼭 껴안았소.

《적란아, 혹시 말이다. 어머니가 잡히거나 잘못되면…》

나는 얼결에 손을 어머니의 입에 가져다 대였소. 어머니는 나의 연약한 어깨를 다시한번 으스러지게 꽉 잡아주고는 치마허리끈을 조이며 나갔소. 나는 부엌문밖까지 따라나갔지만

어머니를 멈춰세우지도, 부르지도 못했소. 그날의 새벽공기는 류달리 싸늘하더구만.

나는 마음이 어수선하여 일찌기 학교에 가려고 하였는데 난데없이 미군을 실은 트럭들이 잇달아 큰길로 달리는것이였소. 이전 일본헌병대병영자리를 차지한 미군이 쓸어나오고있었던거요.

이어 요란한 총소리가 거퍼 들려왔소. 파출소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부상자들을 업거나 끼고 뛰여오고있었소. 헐떡거리며 집앞에까지 달려와 쓰러지는데 이웃의 로인들이 떨쳐나와 응급처치를 하였소. 나는 방안으로 달려들어가 소독약과 붕대를 가지고 나와서 함께 부상자들을 처치하고 뒤골목으로 빠져 바다가창고쪽으로 데려갔소. 그러면서도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소.

이날 마산의 주민들은 파출소로 몰려가 식량보장과 미군정의 온갖 폭압의 즉시중지, 민주주의적로동법령의 실시를 요구하였다오. 그런데

파출소로 출동한 미군은 무작정 해산하라고 하였소. 이에 격분한 시민군중이 《정권을 인민위원회로 넘기라!》, 《북조선에서와 같은 민주개혁을 실시하라!》 하고 웨치며 대응해나서자 미군은 평화적시민들에게 총을 쏘며 류혈적으로 탄압했던것이요.

이날 밤늦도록 부모들은 종시 돌아오지 않았소. 그런데 한밤중에 문을 쾅쾅 두드리며 소란스럽더니 대문이 부서져나가고 네명의 서북청년단원들이 구두발로 뛰여들어왔소. 그들은 다짜고짜로 나의 뺨을 때리더니 《네 아버지가 어데 있어?》 하고 소리질렀소. 집을 샅샅이 수색하고나서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다시 밖으로 우르르 밀려나갔소.

이웃집 엿장수아주머니가 황황히 달려와 나의 얼굴에 묻은 피자욱을 닦아주며 속삭였다오.

《양동 4촌언니네 집으로 가거라.》

날이 밝자 나는 4촌언니네 집으로 가 어머니를 만날수 있었소. 그곳에서 멀지 않은 산

전막에서는 중상을 입은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있었소. 가슴을 감은 붕대가 온통 피투성이인 아버지는 열흘만에야 간신히 혼수에서 깨여날수 있었소.

마산의 거리에는 이전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잡는자에게는 상금 5만원을 준다는 공포가 나붙었소.

학교에도 경찰들이 수시로 찾아와 나를 찾는다고 하여 나는 학교에 갈수도 없었소.

1946년이 저물고 새해를 맞은 어느날 지팡이에 의지하여 간신히 걸음을 떼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우리 가족은 모두 정든 고향을 떠나 북행길에 올랐소. 무학산의 고개길에서 마지막으로 학교가 있는쪽을 뒤돌아보는 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버지는 《이제 **김일성**장군님의 품에 안기면 너는 마음껏 공부할수 있단다.》 하고 고무해주었소. 사실 그때 아버지의 건강은 채 추서지 못한 상태였고 이미 38도선이 막혀있어 북으로 가는 길은 온 가족의 목숨을

건 위험천만한 길이였소.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기려는 아버지의 열망은 그 어떤 위험으로도 막을수 없었던것이요.

부산과 서울을 거쳐 개성으로 온 우리 가족은 길안내자의 도움을 받으며 송악산을 향해 떠났소. 달도 없는 야밤이였소. 아버지는 내가 부축해드리려고 하면 자꾸 등을 떠밀며 말했소.

《앞서거라. 어서!》

송악산으로 오를 때 아버지는 간곡히 강조하였소.

《만일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설사 총소리가 울린다고 해도 무작정 앞으로만 뛰여야 한다.》

중턱을 돌아 내리막길로 내려가는데 우리가 지나온 뒤켠에서 야무진 총소리가 새벽공기를 째며 메아리쳤소. 내가 소스라쳐 놀라 뒤돌아보자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먼저 가라고 손을 젓는것이였소. 그때 길안내자가 나의 등을

다독여 놀란 마음을 진정시켜주며 아버지에게 말하더군.

《마음을 놓아도 되겠수다. 여기는 북녘땅이외다.》

좀전에 넘어선 등성이가 38도선이 지나간 자리였던것이요. 안내자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이제부터는 내가 부축해드리리다.》 하고 말하였는데 그때에야 나는 이미 송악산에 오를 때 만일 추격을 받으면 길안내자와 나만이라도 먼저 38도선을 넘어가라고 아버지가 그토록 나를 앞세우고 걸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였소.

이렇게 북으로 들어온 아버지는 우산장료양소에서 병치료를 받은 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사업하게 되였고 나는 평양에서 중학교를 졸업한 후 꿈결에도 희망하던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하여 배움의 나래를 활짝 펼쳤소.

1950년대 중엽 **김일성**종합대학 생물학부를 졸업한 나는 교육도서출판사에서 우리 나라의 생물학교재를 편찬하다가 공해과학연구소(오늘

의 환경과학기술연구원)가 조직될 때 번역자료실 실장으로 조동되였소.

사람이 행복에 겨우면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날의 처지를 인차 잊게 되는가보오. 나라에서는 무상으로 집을 주고 돈 한푼 들이지 않고 대학을 졸업시켜 연구사로, 과학자로 키워 내세워주었고 그 혜택속에 어느덧 두 아이를 거느린 행복한 가정의 주부로 된 나는 나도 모르는새에 그 행복에만 도취되여있었소.

1970년대말 연구소의 과학기술협의회에서는 심중한 론의가 있었소. 연구소가 조직될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중에는 도시생활오수를 정화하면서 단백먹이를 얻어낼데 대한 과제도 있었소. 그런데 연구소의 생물분과에서는 미생물첨가제로 오수침전물에서 단백먹이를 얻어내기 위한 연구사업을 여러해째 해왔지만 실패를 거듭하고있었던거요. 협의회에 참가한 나는 오수를 정화하는 강한 능력을 가진 식물에 대한 번역자료를 제기했소. 그 자료는 식물의

학명도 정확하게 밝히지 못한 몇줄 안되는 번역자료였기에 연구사들도 주의를 끌지 못했소. 오수를 생물학적방법으로 정화하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나의 마음은 번거로웠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고있었소.

나를 통해 연구소에서 진행된 론의에 대해 알게 된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눈길로 나를 쳐다보군 하였는데 나는 그 눈빛의 의미를 인차 깨닫지 못했소. 당시 80고령이였던 아버지는 년로보장을 받고있었고 원체 과묵한 성미인지라 나의 사업에 대해 가타부타 훈시하는 일이 없었소.

며칠간 연구소에 긴장한 번역사업이 제기되여 나는 연구소에서 숙식하게 되였소.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의 병세가 위급하여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게 되였소. 페염이였는데 때를 놓쳐 아버지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채 숨을 거두었소. 그런데 아버지가 병에 걸리게 된 사연이 나의 심정을

더욱 절통하게 하였소.

내가 연구소에 나간 후 아버지는 마을주변의 못이나 하천들을 돌아다니며 물풀들을 얻어다가 집안의 욕조와 마당의 물탕크에 넣어두군 했다는거요. 때는 초가을이였는데 날씨는 그리 춥지 않아도 강물은 차거웠소. 그런 물속에 들어가 물풀을 건어오다나니 아버지는 온몸이 그대로 물참봉이 되여 돌아올 때도 있었던거요. 그러다나니 감기에 걸렸는데 아버지는 열이 나는 속에서도 물속에 들어갔으니 끝내 페염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된것이였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와 물탕크안의 물풀들을 건어내는 나의 심중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소.

일본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 너는 꼭 조선의 꽃이 되여야 한다던 아버지, 부상당한 몸으로 북행길에 오르면서도 나의 손을 꼭 쥐며 평양에 가면 마음껏 공부할수 있다고 희망을 안겨주던 아버지, 그런 아버지가 80고령의 몸으

로 차거운 물속에 들어가 풀들을 모아오면서 나에게 하고싶은 말은 무엇이였겠소. 위대한 수령님께서 과학자로 키워 내세워주었건만 그 은정에 보답을 하지 못하는 자식으로 인한 죄책감, 우리 나라를 인민의 락원으로 꾸려가시려는 수령님의 구상을 받들지 못하는 나에 대한 질책이 아니였겠소.

연구소로 돌아온 나는 물살이식물로 생활오수를 정화하는 연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제기하였소. 그때 나는 우리 나라에서 그 식물을 찾지 못하면 온 세상을 뒤져서라도 반드시 찾아다가 우리 나라의 기후풍토에 순화시켜낼 결심을 굳게 다지고있었소.

연구소에서도 나의 연구를 지지해주었고 몇명의 조수들과 실험공들로 연구진이 무어지게 되였소.

나는 협의회에서 토의된대로 우리 나라에서 서식하는 물풀에 대한 조사로부터 연구를 시작하였소. 대동강과 보통강, 남강, 비류강, 청

천강을 비롯한 강하천을 오르내리고 호수들을 찾아다니며 물살이풀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켰소. 여러 식물들이 있기는 하였으나 오수와 같이 심한 오염물을 정화시킬 정도의 능력을 가진 물살이풀을 찾지 못하였소.

생물학, 원림학분야의 교수선생들을 만나보았는데 그들도 정화수생식물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보았다는 사람들은 없었소. 이미 우리나라의 강하천들의 물풀들에 대한 조사사업을 원만히 진행하고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관상용식물에 대한 조사도 배합하여 진행할것을 권고하였소.

나는 중앙식물원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여러 온실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하였소.

뙤약볕이 내리쪼이는 무더운 날이나 소나기가 쫙쫙 퍼붓는 궂은날이나 가리지 않고 강하천을 오르내리고 온실들을 찾아다니는 나에게 어떤 사람들은 측은하여 말하기도 하였소.

《그런 풀은 없습니다. 괜히 헛수고를 하지

말고 여기 앉아서 땀이나 들이세요.》

그러던 어느날 나는 어느 대학의 온실관리공에게서 어지러운 물을 맑게 하는 식물 몇개가 여러해전에 온실안의 물탕크에 떠있었는데 겨울에 다 얼어죽었다는 말을 들었소. 그것이 정말로 내가 찾는 식물인지는 알수 없었으나 한가닥의 희망을 안겨주었소. 그 식물에 대해 물어보았으나 생물학연구사가 아닌 관리공으로서는 대략적인 생김새에 대해 어렴풋이 기억할뿐이였소.

도대체 어떻게 생긴 식물일가? 표상조차 뚜렷치 않은 그 미지의 식물을 꿈속에서라도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가? 이런 생각을 하며 잠에 들었고 아침이면 또다시 온실들을 찾아다녔소.

내가 보통강을 끼고도는 구석진 곳의 어느 온실에 갔을 때였소.

온실책임자의 안내를 받으며 관상용물고기를 기르는 건물에 들어서던 나는 칸칸이 막은 물탕크에 떠돌아가는 낯선 물살이식물을 보았소.

마침 한 로인이 그 식물을 물에서 건져서 다

른 금붕어탕크로 옮겨가려던 참이였소.

그 로인이 들고있는 식물의 뿌리를 보는 순간 나의 머리속으로는 (아! 저것이다!) 하는 환성이 지나갔소.

마치 파뿌리와 같은 새하얀 수염뿌리!

분명 그 뿌리는 오수의 어지러운것들을 걸러낼수 있는 생물학적특성을 가지고있을것이라는 연구사로서의 예감이 갔던것이요.

나는 로인에게 그 식물의 이름이 무엇인가고 물었소.

그때 로인은 《특별한 이름이 없다오. 붕어못에 띄워놓기에 난 그저 <붕어풀>이라고 부른다오.》 하고 말하였소.

온실책임자는 그 식물은 10여년전에 내각의 한 일군이 이웃나라에 갔다오면서 가져온것을 자기가 몇뿌리 얻어다가 온실에서 키워온것이라고 하였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얼굴이 뜨거웠소.

색다른 풀 한포기를 보고도 조국을 생각하

고 또 그것을 10여년간의 정성을 들여 가꾸어 온 사람들이 진정한 애국자들이 아니겠소.

나는 원림사업소의 도움을 받아 온실곁에 작은 실험실을 내왔소.

실험에 앞서 연구사들과 실험공들은 우선 식물의 이름부터 바로 짓기로 하였는데 우리는 《풍옥란》이라는 이름을 달아주었소. 그 식물의 줄기가 바람을 불어넣은 고무풍선처럼 부풀어오른 방울모양이였는데 마치도 그것이 푸른 옥처럼 느껴졌소. 그리고 예로부터 우리 인민은 아름다운 꽃을 란이라고 불러왔다던 아버지의 이야기도 생각났소. 연구사들과 실험공들, 온실의 관리공들도 저마끔 《풍옥란, 풍옥란!》 하고 되받아외워보더니 이름이 부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의미도 좋다면서 모두들 기뻐하였소.

온실옆의 작은 실험실에서 풍옥란과 함께 4종의 물살이식물을 함께 실험하였는데 6개월간의 연구결과는 풍옥란의 정화기능이 다른

물살이식물에 비할바없이 대단하다는것이 밝혀졌소.

연구소의 과학협의회토의를 거쳐 어느 오수정화장을 중간실험지로 정하고 옮겨갔소.

오수의 역한 냄새를 맡으며 귀중한 풍옥란을 하나하나 띄울 때는 가슴이 조마조마하였소. 과연 오염이 심한 물속에서 식물이 자랄수 있겠는지 하는 우려도 없지 않았소. 그런데 풍옥란은 오히려 놀라운 번식률을 기록하였소. 어지러운 물일수록, 오염도가 높을수록 풍옥란은 오히려 그것을 자양분으로 하여 하루가 다르게 아지치기를 하였고 얼마후에는 눈에 알릴 정도로 대단한 정화능력을 보여주었소.

나는 연구소에 풍옥란의 성분분석을 의뢰하였소. 분석결과는 나자신도 놀라울 정도였소. 잎과 줄기에 사료가치를 보여주는 단백질함량이 풍부한데다 특히 리진함량이 대단히 높다는것이였소. 그리고 오수에서 걸러낸 독성을 띤 중금속성분들이 대부분 풍옥란의 뿌리에 남아

있다는것도 밝혀졌소.

나는 풍옥란을 단백먹이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계획을 작성하였소.

과학연구의 길은 결코 순탄치 않았소. 언젠가는 갑자기 내린 무더기비로 중간시험장의 풍옥란들이 모두 휩쓸려가고 짓이겨지는 곡절을 겪었는데 이번에는 연구사업에 리용하던 실험용오리들이 전염성눈병에 걸렸소. 실험용오리들이였기에 제정된 사료외에는 다른 풀이나 약재를 리용할수 없었소. 실험수치는 과학자의 량심이였던것이요.

병든 오리를 안고 어쩔바를 모르는 나를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오리목장의 로동자들도 손걷고 도와나섰소. 그들은 실험용오리사에서 병든 오리들뿐아니라 함께 생육하던 오리들을 몽땅 걷어내고 두배나 더 많은 건강한 오리새끼들로 연구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해주었소.

단백질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에서는 어

느 한 단백풀보다는 떨어졌소.

그러나 경영일군들은 그 단백풀은 경지면적에 많은 비료를 주어야 하고 김매는 로력이 들어가지만 풍옥란은 오리사육과정에 생겨나는 폐수를 정화시키면서도 비료와 관리로력이 필요없이 단백먹이를 얻을수 있는 물살이식물이므로 경제적타산이 맞는 매우 좋은 풀이라고 호평하였소.

풍옥란이 우리 나라의 정화시설들과 가금목장들에 생산도입되게 된데는 이런 사연이 깃들어있다오.

지금도 풍옥란의 인민경제적가치는 계속 밝혀지고있소. 얼마전에는 어느 의학연구소에서 풍옥란을 주원료로 약품을 개발하였다고 하더군.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나에게는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군 하오. 철창사이로 어린 딸을 바라보던 인자한 눈빛, 쇠고랑을 차고 왜놈경찰들에게 끌려가면서도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바꾸면 안된다던 그 절규, 달빛도 없는

야밤에 부상당한 몸으로 위험이 뒤쫓아오는 송악산의 고개길로 나를 앞세우고 따라오던 아버지, 행복에 도취되여 과학자의 본분조차 잊을번 한 나를 지켜보던 엄한 눈길… 이런 아버지의 참된 모습이 나의 가슴속에 평생 깊이 새겨져있었소. 그리고 그 모습이 내가 인민의 사랑받는 과학자로 한생을 살도록 꿋꿋이 떠밀어주고 이끌어주었다오.

성구속담

인 과 관 계

— 죄악을 심고 덕의 열매를 따먹을수 없다.

죄는 죄대로 가고 덕은 덕대로 간다는것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 한강물이 제 곬으로 흐른다.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대가로 벌을 받기마련임을 비겨 이르는 말.

— 의리는 의리로 갚아야 한다.

상대자가 후하게 대하면 이 편에서도 거기에 맞게 후하게 대접하여 갚아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시】

조국을 생각할 때면

박 현 철

땅을 생각할 때면
우리는 제일먼저
수령님을 생각한다
제손으로 심고 가꾸었어도
제것으로 될수 없던 그런 세월을
영원히 끝장내주신분이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이시기때문

하늘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제일먼저
수령님을 그려본다
눈부신 해와 별로 인민의 세상

강국의 이 세월을 영원히 밝혀주신분
그이도 또한 우리 수령님이시기때문

새로 일떠선 공장
멋쟁이공원 희한한 새 거리
또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길가의 흙 한줌 돌 하나를 생각할 때도
그이를 생각한다
왜냐면 내 조국의 모든것
그야말로 그 모든것은
다름아닌 수령님으로부터 시작되였기에

그렇다
무심히 흐르는 한줄기 시내물
굽이쳐흐르는 수천줄기의 강줄기들도
수령님 그 품에서 시작되였다
우리 아이들의 연필 한자루 학습장 하나
그들이 오가는 즐거운 학교길과 야영길
이 나라의 높고낮은 산과 들

끝없이 뻗어간 길과 길들도
수령님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어라

그 어느 두렁길에 서보라
눈비에 옷자락 적시시면서도
무르익는 인민의 행복이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던 그 영상이 어려온다
그 어느 공장길에 서보라
로동자의 기름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며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시던
어버이의 뜨거운 사랑이 가슴에 마쳐온다

이 땅 그 어디에 서보아도
오늘을 위해 앞서 걸으신
로고와 헌신의 자욱자욱이 눈물겹게 있나니
수령님의 손길이 가닿지 않은
그런 고장 그런 산천
그런 학교 그런 병원

그런 탄광 그런 광산…
이 나라엔 하나도 없어라

수령님은 자신의 거룩한 한평생으로
민족이 자자손손
딛고 살 기름진 땅과
이고 살 푸른 하늘을 펼치시고
먹고 입고 쓰고살 모든것을
  만드시였어라
우리는 그이의 가슴에 끓던 열과 정
그이의 심장에 고동치던
그이의 붉은 피를 받아안은
그이의 천만의 아들딸

우릴 위해 걸으신 수령님의 그 자욱을 따라
우리 장군님 걸으시였고
오늘은 우리 원수님 걸으시며
강대한 새 조선을 탄생시키시였나니
인민은 체험으로 깨달았다

수령님을 떠난 삶이란 없음을
수령님을 떠난 존엄이란 없음을

그래서
그때문에
수령님을 노래하면 조국이 되고
조국을 노래하면 수령님이 어려오는
아아, 수령님과 조국
조국과 수령님은 영원한 하나이여라

【시】

조국과 그이

리 창 식

이 땅의 한그루 나무 한포기 풀도
그이껜 더없이 소중한 살붙이여라
목숨도 아낌없을…
말없는 하나의 조약돌조차
그이껜 살아숨쉬는 생명체여라
한품에 껴안아 지켜내고싶은…

남먼저 맞으시는 새날의 아침
집무실창가에 비끼는 한점 노을빛에도
온넋을 불붙이시는 그이이시여라
천만마디 심중의 뜻
내 나라 아침강산에 얹으시며…

오늘의 조국을 위해
밤잠도 잊고 사신 그이
헌신도 사선의 길도 서슴없던 그이
희생으로 안아오신 승리의 해와 달은
이 땅에도 저 하늘에도 눈물겹게
  새겨있어

래일의 조국을 두고
꿈도 많으신 그이
포부도 원대하신 그이
기적과 번영의 눈부신 빛발로
누리를 가득 채우시며
또다시 펼쳐주신 설계도앞에
마음은 부풀어 가슴은 벅차

조국의 폭풍치는 그 모든 전진이
그이 크나큰 심장의 박동에 이어져있어라
조국의 부강하는 오늘과 래일이
그이 위대한 사색속에 숨쉬고있어라

한없이 거룩한 손길은
수령님들 한평생이 깃든 이 땅을
만복의 대지로 가꾸고
열정에 불타는 시선은
어머니조국의 부강한 미래
강국의 천만년을 더듬나니

그이의 영상은
찬란한 국기의 광휘로움으로
우리의 심장마다 빛뿌리여라
그이의 음성은
아름다운 애국가의 선률처럼
우리의 가슴마다 젖어들어라

조국에 다함없는 사랑도 정도
조국의 모든 승리도 번영도
한품에 다 안고계시는 그이
그이는 사랑하는 나의 조국

우리의 인민공화국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아, 온넋을 불태우리라
몸과 맘 기꺼이 다 바치리라
이 땅, 이 하늘에 영원토록 하나인
어머니조국을 위해
경애하는 그이를 위해!

【시】

행복의 세월이 너를 기다린다

리 철 준

한돌이 되였구나
가슴속에 펑펑 솟는 애정의 샘
퍼올리고 퍼올려도 끝이 없을
둘도 없는 나의 사랑 귀여운 딸애
이 세상에 고고성을 터친지 어느덧 1년

돌생일이 뭔지도 모르는 철부지이건만
능금알같은 두볼에 피여오른 해맑은 웃음
바라볼수록
절로 흥그러워지는 마음
기뻐 높뛰는 이 가슴
아버지된 심정만이던가

넘치는 희열과 함께 깊어지는 생각
진귀한 보석을 깔아
새 생명을 받아준 평양산원
따뜻한 그 품에서 시작된 딸애의 삶
얼마나 행복한 세월이 너를
　기다리고있는가

이제 좀 있으면
보육원들의 살틀한 눈빛
너의 온몸을 쓰다듬어주고
또 그 다음엔
12년제의무교육의 꽃대문
너를 향해 활짝 열리리

아프면 아플세라
정성을 고여 보살피는
무상치료제의 따스한 온기
너의 모든 성장속에
감돌아흐르리

아, 고마운 내 나라 우리 제도의 손길이
너의 앞날속에 기다리고있어
북받치는 격정이여
사회주의대화원을 가꿔가시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사랑의 그 품에서
너 한떨기 아름다운 꽃으로 피여나리니

상 식

불 씨

옛날에는 며느리가 부엌불씨를 꺼버리면 시어머니로부터 엄한 꾸중을 들었다. 게으르다는 리유도 있겠지만 더 큰 리유는 불씨의 귀중함에 있었다.

불씨는 집안을 따뜻하게 하는 온기의 원천이자 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힘이 있다고 믿었기때문이였다.

불씨는 부엌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부엌의 《부》는 불을 뜻하고 《엌》은 장소를 나타내

웃어라 귀여운 딸애야
더 밝게 더 활짝 웃어라
돌생일을 맞는 너의 앞엔
생일상만이 놓여있는것이 아니다
원수님 안겨주실 기쁨의 날과 날
천만행복이 놓여있단다!

는 접미사 《억》이 변한것이다. 즉 부억이란 말은 불 때는 곳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불씨는 어떤 일이 있어도 꺼버리면 안되는 부억의 최고관심사였다. 불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부리나케》라는 말을 낳았다.

불씨가 꼭 필요할 때 부시를 쳐서 불을 일으키는데 빨리 쳐야 불이 일어나므로 이런 까닭으로 매우 급히 서두르는 모양을 두고 《부리나케》라고 말하게 되였는데 이 말은 《불이 나게》가 바뀐 말이다.

【시】

나는 조선민족이다

김 학 송(재중동포)

이 세상 그 어데를 가나오나
나는 진정 자랑하고싶노라
내가 배운 가장 무거운 말로
—나는 조선민족이다!

조선민족—
천번 불러 다정한 그 부름속엔
얼마나 살뜰한 정이 깃들어있는가
선조의 넋! 부모의 피!
미래로 달려갈 후손들의 복된 숨결까지도…

조선민족—

마음과 마음을 혈맥처럼 이어주는
그 친절한 부름속에서
넘어지면 달려가 부축하고싶고
앓으면 약이 되고싶고
슬픔엔 꽃다발로 안기고픈
그 마음, 그 정성
샘물처럼 말갛고
박꽃처럼 깨끗하고
진달래처럼 붉어라

무지개우의 선녀처럼 우아한 춤
계곡을 울리는 개울처럼 청아한 노래
연분홍치마자락
하아얀 두루마기
빠알간 고추
시원한 랭면
오직 우리만이
느낄수 있고 포옹할수 있는
그러한 체취

그러한 빛갈
그러한 긍지

아, 백의동포 나의 겨레
타향에서 그 이름 속으로 부르면
눈굽에 저도 몰래 이슬이 맺힘은
하나의 민족, 그 끊을수 없는
절절한 정이 흘러서겠지
광활한 땅에 널려 살아도
같은 신세, 같은 지향이 있기때문이겠지

순간의 오해에 얼굴 붉히다가도
돌아서는 사이에 뉘우침이 앞서
또다시 얼싸안고 웃고만싶은것도
너와 나는 한피줄, 단군의 후손이기
　때문이겠지

한시를 갈라져도 그리운 우리 겨레
이름은 몰라도 정다운 우리 형제

그 언제 이런 세월 있었던가

넓어가는 하늘아래
따사로운 큰집에서
한민족의 긍지로 살며 숨쉬기에
이것이 소중한줄 그대는 아는가

용감하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
다정하고 다감한 우리 민족
오직 미래를 위해
온갖 슬픔도 가실줄 알고
온갖 어려움도 이길줄 아나니

내가 갈길
내가 짊어질 짐을 너무나 잘 아노라
가령 내가 이 세상 막끝 이름없는 계곡에서
한오리 연기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나는 정녕 잊지를 않으리라
내가 이 세상에서 조선민족으로 살았다는것을

【시】

연변의 사과배

조 문 찬(재중동포)

연변 룡정 돌배나무줄기에
조선 북청 참배나무가지를 교접해
배육해낸 새로운 품종—연변의 배

돌배맛 별로 없고
(시고 텁텁하고 버썩버썩하다)
참배맛만 고이 남아
(시원, 달콤하고 사각사각하다)
네 이름 사과배라 불렀지

사과배란 북청배처럼

어디로 가나 자기 초심을 잃지 말라는
조상들 숨은 부탁이 아닐가

접목의 신분으로 이국타향에 와서
올 때 칼맞던 그 아픔 가슴에 품고
올 때 뿌리잘리던 그 설음 마음에 새겨

오늘은 사과배되여 받들려도
북청배의 그 맛 고즈넉이 지켜온
너야말로 진정 배들중 참배로구나!

【기행문】

대동강은 출렁인다!

림 금 산(재중동포)

평양에 다녀온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은띠인양 평양시 도심을 누비고간 대동강만은 그냥 내 가슴속에 오늘도 쉼없이 출렁인다.

하르르 주름잡히는 그 수면, 파르스름한 그 색갈, 호수이면 이보다 청청할가! 강이라기보다 너무나도 잘 다듬어진 진짜 거울같다. 깨끗한걸 좋아하고 단아하고 정연한 조국인민들은 이 지상에 새로운 기적을 낳았다. 봉화갑문, 미림갑문 등 유명한 갑문들이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잘 조절하여 들말처럼 감뛰던 대동강을 유순한 처녀강으로,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었다.

나는 관광을 다니면서 이같이 오염 안되고

싱싱한 청춘의 강은 처음 본다. 반듯한 수면에는 눈덩이처럼 하얀 물오리무리가 동동이고 강 이쪽 버들숲에서는 강복판에 있는 릉라도의 우거진 숲으로 목이 쑥쑥 시원히 빠진 하얀 왜가리무리들이 떼지어 날아다닌다. 도시오염이 굉장한 다른 나라들의 일부 대도시들이 머리속에 떠오른다. 오염이란 두 글자와는 인연이 없는 대동강은 그 주위의 건물들의 모습을 비껴안고 유유히 흐른다.

대동강반에 높이 솟은 주체사상탑은 강 이쪽에 미끈하게 솟아 하늘을 찌르는데 그 바로 맞은켠에 대동강을 사이에 두고 유명한 민족식 건물—인민대학습당이 호함지게 웃는다.

유명한 옥류관, 련광정, 강중심 릉라도에 목란꽃처럼 활짝 피여난 5월1일경기장 등은 푸른 치마와 같은 대동강과 한데 어울려 가관을 이룬다. 더구나 사람들의 눈길을 이끌어가는것은 강중심에 치솟아오르는 한쌍의 대동강분수이다. 이 분수는 푸른 하늘에 뿜겨져올라 하얀

분말을 찬란한 해빛에 반죽하여 꽃무지개처럼 폭발한다. 푸르른 대동강에 쏟아져내리는 하얀 물방울들은 하늘이 푸르고 강이 푸른데 분수는 결국 《하늘강》과 《땅강》사이에 놓여있는 오작교인듯싶다. 또 《하늘호수》와 《땅호수》사이에 오가는 하얀 입김인듯싶다.

세계작가일화

작가의 정열

프랑스작가 오노레 드 발자끄가 한창 열이 올라 장편소설 《우제니 그랑데》를 쓰고있을 때였다.

집사가 찾아와서 부친의 병이 대단히 위급하여 걱정이 돼서 알리러 왔다고 말하였다.

발자끄는 달리던 펜을 멈추고 그의 말을 듣다가 마귀한테 홀리듯 《가만, 본래이야기로 돌아가자구. 우제니의 결혼말이네.》 하고는 다시 펜을 잡았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앞의 춤추는 분수, 만수대예술극장앞의 아름다운 분수, 평양체육관앞의 흰 깁같은 분수 등등과 함께 어울려 웅위로운 평양시를 물의 도시, 분수의 도시, 차분히 젖어있는 싱싱한 도시로 웃음짓게 한다.

하냥 푸르게 맑게 출렁이여라, 대동강이여!

썼다가는 지우고 지웠다가는 다시 쓰고… 이러기를 거의 한시간나마 걸렸다.

발자끄가 펜을 놓고 돌아보니 집사는 아직도 그의 등뒤에 서있었다.

《아니, 자넨 왜 그렇게 서있나?》

《부친께서…》

《그렇지, 아버지가 어떻다구 했지?》

《병이 위급합니다.》

《뭐라구, 병이 위급하다구?》

그제야 발자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달려갔다.

【수필】

아버지의 소원

김 영 자(재중동포)

누구나 다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있을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해마다 봄이 와서 어김없이 피여나는 앞마당의 살구꽃을 보면 입버릇처럼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또 살구꽃이 피였소. 내 고향에두 지금쯤 감나무 잘 자라겠지?!…》 그러면서 자기의 소원을 말씀하시더랍니다.

《난 고향에 가보고싶소! 너무너무 가보고싶소. …》

《통일된 내 나라의 고향 충주에서 족보를 펼치고 떳떳이 충주김씨가문회의를 열어야겠는데…》

《우리 애들 학문으로 대를 잇게 하기요. …》

먼 옛날, 아버지는 우리 나라 남쪽의 감나

무 우거진 충주에, 엄마는 또 멀리 북쪽의 갑산골에 태를 묻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마만한 세월이 흘렀는지… 아직도 북과 남은 계속 《작은 금》 하나를 그어놓고 동강난 그 땅덩어리우에서 서로를 그리면서 아픔에, 망향에, 설음에 흐느낍니다.

일제강점시기 나라잃고 집잃고 부득불 살길을 찾아 방방곡곡 구름처럼 떠돌며 정처없이 헤맸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아픈 이야기들이 지금도 메아리인양 나의 귀전에 쟁쟁히 들려오는것 같습니다.

철부지 여섯살에 추운 초겨울 할아버지의 쪽지게에 앉아 사품치는 두만강을 건넜다는 엄마의 서러운 이야기, 애를 업고 물함지 이고 도강하는 남편을 따라 무작정 두만강에 뛰여들지 않으면 안되였었다는 외할머니의 구슬픈 이야기, 열네살에 겁에 질린 나어린 동생들 손을 잡고 아버지를 따라 허둥지둥 혀를 날름대는 압록강을 가까스로 건너왔다는 아버지의 아짜

아짜한 모험기… 영화필림마냥 눈앞에 펼쳐지는 그 수난에 찬 모습들에 저도 모르게 두줄기 뜨거운것이 주르륵 볼을 타고 내려서 어느덧 시내물로 강물로 흐릅니다.

압록강, 두만강도 그때 그 시절 자기의 거울속에 속속들이 담아두었던 그 하많은 수난의 사연들을 잊지 않기에 지금도 저렇게 넘실거리며 흐느끼고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소원도 그런 설음속에서 세월이 흐를수록 자꾸만 부풀어올랐겠지요.

낯설은 이국땅에서 고생하며 거칠게 자란 엄마는 16살 어린 나이에 28살 되는 상처한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왔답니다. 그때 우리 집은 입에 풀칠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너무나도 째지게 빈궁했지만 대대로 전해내려온 《학문으로 대를 이어간다는 가문의 준칙》을 지키기 위해 맏아들인 아버지만이라도 가까스로 공부시켰더랍니다.

아버지는 늘 엄마보고 《나의 고향은 진달래, 무궁화가 피여나는 조선이요. 내 동년은

그곳에 있소. 드넓은 대동강, 한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내 나라가 이제 독립되면 아주 멋질것이요! 나라가 해방되면 우리 함께 꼭 가보기요. …》라고 하시더랍니다.

약제사일을 하시면서도 늘 감회에 푹 젖어서 감나무 우거진 고향마을의 자랑을 하시더랍니다.

《우리 집 앞마당에 살구꽃이 피였으니 우리 누님들 계시는 곳인 함경북도 온성에두 살구꽃 피였겠지? 그리구 내 고향 충주에는 감나무꽃, 무궁화꽃이 피였을가? 당신의 고향 갑산에두 진달래가 피였겠구만! 6촌형님네는 지금 다른 곳으로 이사갔다지? 언제면 다시 만나볼수 있을가. …》

또 평시에 늘 책을 보시면서 일본놈들때문에 하던 공부를 채 못한것을 길게 한탄하면서 《학문으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함을 절대로 잊지 말아주오!》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드디여 1945년 8월 15일, 그렇게 고대하던 해방을 맞아 이제 인차 고향에도 가볼수 있을것이라며 그렇게도 기뻐하시던 나의 아버지, 하

지만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가증스런 외세의 도끼에 찍혀 나라가 두동강나고 아름다운 삼천리금수강산이 무참히 북과 남으로 분렬되고말았습니다.

이어서 괴상한 온역이 온 마을을 휩쓸어 우리 집에서도 새끼줄을 쳐서 경계선을 했었는데 8살짜리 큰 오빠를 제외하곤 온 집식구가 모두 쓰러졌답니다. 그러던 어느날 락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궂은비 추적추적 내리던 쓸쓸한 날이였답니다. 아버지는 맥없이 옆에서 역시 앓고있는 엄마손을 만지면서 《안되겠소. 난 아무래도 네 아이를 당신에게 맡기고 먼저 가야 할것 같소. 내가 이 병마를 싹 가지고 가야 하는데… 꼭 힘내서 살아주오. 우리 고향에 함께 가자고 했는데… 통일된 내 조국에서 애들에게 학문으로 길을 닦아주려고 했는데… 미안하오. …》라고 말씀하시며 힘겹게 겨우 마지막 한숨을 후— 하고 길게 내쉬시더니 조용히 눈을 감으시더랍니다. 그때가 바로 내가 한

돌도 되기 전인 43살의 너무 아까운 나이에…

고향, 고향이 뭐길래? 조국, 조국이 뭐길래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그 고향, 조국을 그토록 그리였을가? 고향, 조국을 잃은 실향민, 망국노에겐 그들이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른이여도 그 못 잊을 고향, 조국은 모두 보고싶은 어머니일것이며 오래 멀리 떨어져있을수록 더더욱 달려가 와락 안기고싶은 따뜻한 어머니의 품일것입니다. 하기에 그토록 사무치게 보고싶은 어머니품에 끝끝내 안겨보지도 못하신채 영영 떠나야만 하는 그 슬픈 아들인 나의 아버지, 마지막 들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원한을 절규하시며 통절히 흐느껴 웨칩니다.

《고향에 가보고싶다. 통일된 내 나라에 언제면 갈가?》

《학문으로 애들의 길을 닦아주오. …》

빌어먹어도 그토록 가풍인 지식을 중히 여기시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목소리가 지금도 애절하게 들려오는듯 합니다. 이 세상에 태

여나서 생전 한번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못한 나도 오늘은 목메여 그 아버지를 불러봅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소원은 통일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통일된 조국에서 애들을 마음껏 공부시키고 쓸모있는 나라의 인재로 키우는것이였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은 아버지의 소원이자 우리의 소원이고 우리 백의민족의 소원입니다. 언제면 대대로 내려오며 그토록 간절하게 소망하던 통일이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가요? 저 백두산의 망망한 밀림속의 미인송도 푸른 창공을 꿰지르고 우뚝 솟아 우리 백의민족의 그

유모아

《령리한》 안해

한 작가가 단편소설을 거의다 집필한 원고지를 책상우에 놓아두고 볼일이 있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다. 그런데 원고지는 온데간데 없고 책상우는 말끔히 정리되여 있었으며 부엌에서 종이타는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부엌으로 후닥닥 뛰여나가 안해에게 소리쳤다.

슬픔을 온 하늘에 대고 웨치고있습니다. 저기 저 백두산에서 나라를 찾느라고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친 우리 항일혁명투사들의 충혼들도 안타깝고 원통해하면서 의분에 차 굽어보고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 아니 우리 팔천만 백의겨레의 소원은 반드시 삼천리금수강산에서 꽃이 필것입니다.

통일잔치를 맞이하는 가슴벅찬 그날을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흥분으로 마음이 둥둥 들뜹니다. 그 기쁨 아버지가 계시는 저기 먼 하늘나라에도 오래오래 메아리쳐가고 울려퍼질것입니다. …

《당신 지금 뭘 태우오? 혹시 원고지가 아니요?》

그러자 안해가 짐짓 뾰로통해서 말했다.

《아이참, 당신 보기엔 내가 머저린줄 아세요? 아무렴 내가 써야 할 원고지를 태우겠나요. 다 쓴것만 골라 태웠어요.》

작가는 너무도 억이 막혀 입만 벌리고있다가 쓰겁게 한마디 했다.

《참, 당신은 <령리한> 안해요.》

【작가일화】

집현전에서의 독서력

서거정이 어느날 저녁 집현전에서 수직을 서고 있었다. 당시로 말하면 문종이 죽고 나어린 단종이 왕위에 방금 오른 시기였는데 수양대군(세조)이 어린 조카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음으로양으로 날치였다. 이러한 때 단종을 옹호하고 수양대군을 반대하는 세력들의 집결처인 집현전을 수양대군은 눈두덩에 돋은 혹처럼 미워하였다. 그리하여 어수선한 기운이 암암리에 집현전에 감돌던 때이라 30대 중반기 나이의 서거정은 수직을 서면서도 마음이 뒤숭숭하였다.

고요가 집현전의 어두워진 뜰에 내리덮이였을 때 《어험, 어험.》 하는 마른기침소리가 났다. 기침소리를 들어보아서는 서거정 자기보다 7~8살아래인상싶었다.

서거정이 등불앞에서 보고있던 책으로부터 눈길을 방문쪽으로 돌리면서 물었다.

《거 누구요?》

기침하던 목소리가 닫겨있는 문앞에서 겸손하게 대답하였다.

《청을 드릴 일이 있어서 온 선비올시다.》

선비라는 말에 호기심이 난 서거정이 방문을 열어보니 미끈하게 생겼으나 그다지 건강해보이지 않는 청년이였다.

《무슨 일로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청할 일이 있다니 이리 들어오게.》

청년이 방안에 들어와서 단정히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순간 서거정은 정신이 버쩍 들었다. 병약해보이는 혈색이였으나 넓은 이마밑에서 번뜩이는 두눈만은 하늘의 새별이 내려와 박힌듯이 빛을 뿌리는것이였다. 대번에 마음이 끌리는 청년이였다.

《자네는 누군고?》

《예, 저는 성일재(성임의 호)의 동생 성간

이옵니다.》

서거정은 다시한번 놀라운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성임은 서거정보다 한살아래인 동년배일뿐더러 1438년에 성임이 사마시(진사, 생원을 뽑는 과거)에 합격할 때 서거정은 진사과에 급제하였다. 서거정이 1444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3년 지나 성임도 문과에 올랐다. 더구나 성임은 세종당시 서거정과 함께 집현전에서 일한 사이였다. 성임에게 벌차고 글욕심많은 동생이 있다더니 이 청년이였구나 하는 생각으로 서거정은 처음 보는 이 청년이 친동생처럼 여겨졌다.

《편히 앉게. 그래 무슨 일로 저녁늦게 찾아왔는가?》

《예, 집현전에 요즈음 희귀한 책이 새로 들어와 비장되여있다는 소문을 들었사와 그 책을 한번 보게 해주십사 하는 청을 드리러 왔습니다.》

서거정은 언젠가 성임이 웃으면서 자랑삼아 하던 말이 생각났다. 성간은 글공부에 마음을

붙인이래로 어찌나 책을 파고드는지 집에 있는 적지 않은 책들을 다 훑어본 다음부터는 어느 친구, 아무개 선비의 집에 진귀한 책이 있다는 말만 들어도 무작정 달려가서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보고야 만다는것이였다. 그래서 아는것이 자기보다 많다는 자랑이였다.

성간이라는 그 《진드기》가 이밤은 서거정 자기에게 달라붙은셈이다. 책도적은 도적이 아니고 책욕심은 사욕이 아니라는 말이 있는것처럼 서거정으로서는 이런 《진드기》가 싫지 않았다.

《자네 코가 몹시 예민하네그려. 이 집현전에만 보관되여있는 책까지 냄새를 맡았으니 말일세.》

서거정은 웃고나서 일부러 딱한것처럼 말을 해보았다.

《그런데 좀 난처한 일이 있네. 이 집현전 규률이 비장서책은 마음대로 외부에 빌려주지 못하게 되여있으니 어쩐다?》

《그런 귀중한 보물을 어찌 빌려내가겠습니까. 보게만 해주십시오. 집현전 뜰에서라도 오늘 밤중으로 한번 읽어보기만 하고 가겠습니다.》

《응? 그렇게 량이 많고 내용이 까다로운 책을 한번 읽어보고 알수 있을가?》

《알고모르고는 저에게 달렸으니 한번 보게만 해주십시오.》

《그럼 저 건넌방에서 읽어보게나.》

서거정은 보고싶어하는 책을 찾아주었다.

성간이 책을 받아들고 건넌방에 들어가더니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서거정이 자리를 펴고 가만히 들여다보니 성간은 단정하게 앉아서 책에 정신을 쏟아붓고있었다. 서거정이 한잠자고 깨여서 보아도, 날이 샐 때 일어나 세수를 하고 들여다보아도 성간은 초저녁에 앉은 그 자세 그대로 책에 열중하고있었다.

놀라운 정열이였고 무서운 독서력이였다.

날이 밝자 성간은 다 읽은 책을 서거정앞에 돌려주면서 하루밤 공부를 잘하게 도와주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것이였다.

《인사는 말로 하는것이 아니네. 읽은 책내용을 들려주어야 나도 배울게 아닌가.》

《그럼 제가 책을 읽고 배운 내용을 훈장앞에서 시험치는셈으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성간은 책의 체계와 내용을 하나도 틀림없이 줄줄 외우는것이였다. 과연 다방면적으로 독서하고 비상한 기억력으로 인식하는 성간의 재주와 열정은 탄복할만 하였다.

서거정은 탄복한 심정에서 진심으로 한마디 권고하였다.

《자네가 그렇게 밤잠도 잊고 공부하는것은 좋으나 그러다가 몸이 상할가 근심이네. 부디 몸을 돌보면서 공부하게.》

《고맙습니다. 그러나 무골충으로 오래 살기보다는 잠간을 살아도 보람있게 살고싶습니다.》

《참, 자네 장가를 갔겠는데 부인이 남편둔 과부노릇 하기 짜증나겠네그려.》

《예. 그래서 친구들이 제가 밤마다 서재에

서 오입질한다고 시까스른답니다.》

《서재에서 오입질이라… 하하하. 그거 참, 그래 어느 애기기생이라도 사귀는가?》

《웬걸요, 책과 오입질한다나요.》

성간은 어줍게 한마디 하고 돌아갔다. 이 말

상 식

자녀들의 기억력을 키워주려면

기억력이란 사람이 인식하고 체험하고 행동한것을 새기고 보존하였다가 되살리는 능력이다.

좋은 기억력은 빨리 새기고 오래 보존되며 되살이를 효과적으로 하는것이다.

자녀들의 기억력을 키워주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기억의 여러가지 류형을 발전시키도록 하는것이다. 기억은 어떤 자료를 기억하는가에 따라 형상적기억(소리, 색갈, 모양 등), 언어론리적기억(개념, 법칙, 명제, 정리, 공식 등), 정서적기억(체험한 감정, 시나 노래 등), 운동적기억(로동조작, 체육동작, 무용동작 등) 등으로 나누어진다. 학교시기에는 수많은 자료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므로 여러가

은 성간이 지어낸것이 아니였다. 그가 너무 책속에만 파묻혀있으니 친구들이 그를 《서음》(글읽기를 지나치게 즐김) 즉 책과 음란한 오입질을 한다고 놀려주군 하였던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여 얼마후 성간도 집현전으로 들어가게 되였다.

지 류형의 자료에 대한 기억을 다 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기억에서 의식성을 높이고 의미적인 기억을 위주로 하는것이다. 기억력은 의식적인 기억과정을 통해서 발전한다.

다음으로 기억과정에 기억의 효과를 높이는 여러가지 수법들을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선 새기기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새기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모두 한꺼번에 학습하는 전습법과 몇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하나씩 학습하고 마지막에 전체를 묶어 학습하는 분습법, 련속적으로 하는 집중법, 적당히 휴식하면서 학습하는 분산법 등을 합리적으로 적용할줄 알아야 한다.

또한 자료를 직관화하는것이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며 귀로 들으면서 새기면 그만큼 정확하게 빨리 새길수 있다. 이와 함께 련상법칙을 잘 리용하는것이다.

【인물소개】

고려의 화가 리녕

남 일 옥

리녕은 12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고려의 대표적인 풍경화가이다.

어느해인가 그는 사신을 따라서 송나라에 갔던 일이 있는데 당시 송나라에서 회화의 대가로 인정받던 국왕 휘종은 리녕의 그림에 탄복하여 왕궁의 여러 화가들로 하여금 그에게서 그림을 배우도록 하였다고 한다.

휘종은 특히 리녕이 그린 그림 《례성강도》를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세상에 리녕을 릉가할 풍경화가는 없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후 리녕이 조국으로 돌아왔을 때 송나라

상인 하나가 고려임금 인종에게 《송나라의 이름난 명화》라고 하면서 그림 한폭을 선물하였는데 인종은 그림이 너무도 훌륭하여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림을 보도록 하였다.

하여 리녕도 그 그림을 보게 되였는데 그 그림은 리녕자신이 송나라에 갔을 때 그려주고 왔던 그림이였다.

리녕은 사람들이 자리를 뜬 후 인종에게 다가가 이 그림은 자기가 그린 그림이라고 말하였다.

인종은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서 리녕을 바라보았다.

리녕은 그림앞으로 다가가 뒤면의 접붙인것을 뒤집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정말 리녕의 이름이 새겨져있는것이 아닌가!

그후 송나라 상인은 자기 나라 화가가 그린 명화인줄로만 알고 사온 그림이 결국은 고려국의 화가가 그린 그림이였다고 하면서 리녕의

높은 회화적재능에 다시한번 탄복했다고 한다.

지금 리녕의 작품들은 전해져있지 않으나 《고려사》를 비롯한 국내외의 많은 력사기록들은 그의 창작과 여러가지 일화들을 전하고 있다.

리녕은 우리 나라 사실주의풍경화발전에 기여하였을뿐아니라 송나라 화가들에게까지 사실주의풍경화수법을 가르쳐준 이름난 화가였다.

유모아

두손으로 치는 리유

어느날 아들애가 마당에서 나무를 패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진 왜 한손으로 도끼질을 하나요? 어머닌 두손으로 도끼질을 하던데…》

《그건 어머니의 힘이 아버지보다 약하기때문이다.》

《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두손으로 피아노를 치댔구나!》

【자료】

류린석과 서정시 《전촌빈가》

류린석(1842—1915)은 봉건유생의 집안에서 태여나 호를 의암이라고 하였다. 그는 일제의 조선침략책동이 더욱 강화되자 1894년 의병투쟁을 벌릴것을 호소하고 1896년 2월 7일 제천반일의병대의 의병장이 되였으며 수많은 전투를 벌려 일제침략자들과 그 앞잡이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었다. 1904년에는 평안도지방에서 의병대를 뭇고 투쟁하였으며 1907년에 지구전을 결심하고 로씨야 원동지방으로 건너가서 반일의병활동을 적극 벌리다가 중국 동북지방으로 근거지를 옮긴 다음에도 의병진지들을 더욱 강화하였다.

1910년 5월 류린석은 13도의군도 총재가 되였으며 1913년 남만 관전현에서 반일활동을

변함없이 벌리다가 1915년 중국 동북지방에서 생을 마쳤다.

류린석은 일제와 지주들의 착취와 략탈로 기아와 빈궁속에서 신음하는 20세기초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꾸밈없이 진실하게 노래하였다.

그 시가 바로 《전촌빈가》(앞마을 가난한 집)이다. 시는 비교적 긴 형식의 7언고시이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로 시작되는 시는 먼저 앞마을 가난한 집에서 당장 저녁끼니가 없어 온 가족이 울고불며 야단하는 정상을 펼쳐보이고있다.

《그대는 보지 못하는가/앞마을 가난한 집 아침끼니 굶었는데/저녁끼니 또 없어 아이들 밥달라 조르네/성내여 발구르며 몹시도 울기만 하는데/아버지는 말이 없고 어머니는 세차게 꾸짖네》

시는 뼈빠지게 한해농사를 지었으나 아침

저녁 끼니조차 끓이지 못하는 가난한 농가의 비극적인 정상을 동정을 담아 노래하였다.

집안사정을 알리 없는 아이들은 부모들의 가슴을 허비면서 밥을 달라고 보챈다. 아버지는 속수무책으로 아무 말도 없고 어머니는 도리여 세차게 꾸짖는다. 누구보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한끼라도 굶기면 그것이 가슴아파 몰래 눈물짓는 어머니가 밥달라고 애처롭게 우는 자식을 부둥켜안고 애무해줄 대신 무섭게 꾸짖어야 하는 정상.

시는 이렇게 심각한 극적정황속에서 시작된다.

시적정황이 처절하고 심각한 까닭에 시의 정서 역시 날카로우며 제기하는 문제에로 곧바로 육박해들어갈수 있는것이다.

사랑을 하거나 사랑을 받아야 할 어머니와 자식간에 가정생활에서의 이러한 비극은 결코 자식의 잘못도 아니고 어머니의 잘못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이 가정에 온갖 불행과 고

통을 안겨준 반동적인 통치계급들의 반인민적인 정치에 있다는것을 확인하고있다.

시는 다음 련들에서 이러한 사회악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히고있다.

가마를 뽑아 판대도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아전이 세금 걷어가도 거역하지 못하누나
삯방아로 얻어온 쌀죽이나마 쑤려는데
지주놈 또다시 달려들어 빚값을 독촉하네

보는것처럼 시는 집안의 살림살이그릇이란 가마밖에 없고 그것을 뽑아 판대도 살아갈수 없어 날마다 걱정속에 세월을 보내는데 하루는 아전들이 찾아와 세금내라고 호통치고 다른 날엔 지주놈이 달려와 빚값을 독촉한다고 노래하고있다. 세금과 빚값을 독촉하는 아전이나 지주는 다름아닌 일제놈들의 하수인이였고 앞잡이였다.

결국 시는 농민들이 당하는 모든 불행과 고

통이 일제침략자들과 부패타락한 봉건통치배들의 2중3중의 착취와 압박에 있다는것을 밝히고있는것이다.

다음으로 시에서는 침략자 일제와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략탈로 농민들이 당하는 비참한 생활을 끝없이 동정하면서 아전들의 세금수탈과 지주놈의 빚독촉에 래일을 기약할수 없어 한탄속에 가슴을 두드리고있음을 형상하고있다.

계속하여 시는 불공평하고 모순에 찬 당대사회의 진면모를 파헤치고있다.

세상에 저 부자놈들 무슨 복 타고났기에
질탕치듯 먹고 입어도 재산은 축나지 않네
앞마을 가난한 집 정말로 애처로워라
무슨 죄 있다고 날마다 굶어야 하는가

시에서 서정적주인공은 가난하고 무권리한 농민의 립장에 서서 당대 사회의 불합리한 모

순을 폭로하고있다. 앞마을의 가난한 집에서는 일년 내내 땀흘리며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날마다 굶주리는데 부자놈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진수성찬으로 호의호식하는 불공평한 사회현실을 예리하게 들추어내고있다. 여기서 이야기되는 부자놈들은 무슨 복을 타고나서 잘살고 가난한 농군은 무슨 죄가 있어 굶주리는가 하는 대조되는 사회적문제를 제기하고 결코 숙명론적으로 타고난 《복》이나 《죄》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불상용적인 사회적모순에 있다는것을 형상적으로 밝혀낸것이다.

시는 마지막부분에서 시인이 직접 앞마을 가난한 사람들을 만나 자기가 싸가지고 온 도시락밥을 나누어주고 이들의 불쌍한 처지를 동정하면서 백성들의 생활을 돌보지 않는 봉건정부의 처사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글에서 떠벌이는 구제란 모두 거짓이로구나
문앞 버드나무 바라보니 봄빛만 어려있구나

시는 이처럼 당대 사회에서 고통받는 인민들의 생활을 앞마을 가난한 농가에 집약시켜 보여주면서 그들의 생활을 한폭의 그림처럼 형상하고있다.

시는 생활을 사실주의적으로 진실하게 그려내면서도 거기에 시인자신의 동정과 분노의 감정을 적절히 배합함으로써 당대 사회에 대한 비판정신을 강하게 내비치고있다.

그러나 시는 임금을 비롯한 봉건정부가 말로만 백성들의 생활에 대해 떠벌이지 실지로는 전혀 관심을 돌리지 않고있는 그들의 반인민적시책에 불만을 표시한데 불과하며 그것을 개선할 적극적인 방도를 제기하지 못한 제한성을 가지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전촌빈가》는 당시 우리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한 농가를 통

하여 사실주의적으로 그려낸 진보적인 작품이며 19세기말-20세기초 우리 나라에서 창작된 농민생활주제의 한자시들중에서 대표적인 작품으로 되고있다.

풍 옥 란

편 집 성 문 호
장 정 채 대 성
교 정 주 설 미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9(2020)년 2월 10일
발 행 주체109(2020)년 2월 13일

ㄱ—1466ㄷ